

[제출양식]

영화진흥위원회
2024 년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작품명	제로 데이(Zero Day)
-----	-----------------

작품 기획안(개요)

구분	내용
작품명	제로 데이(Zero Day)
장르	생존 스릴러
기획의도	위기에 빠져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던 약자(弱者)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 성장해나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로그라인	위장 임무로 범죄자로 내몰린 비인가 요원의 목숨 건 정규직 생존기(生存記).
스토리 주요내용	<p>국정원 위장회사 ‘미래 정보’의 비인가 요원 지민은 살과 영혼을 갈아 넣은 임무 수행으로 정규 요원을 앞두고 있다. 부푼 가슴을 안고 출근한 지민. 그런데 먼지 하나 안 남기고 사라져버린 ‘미래 정보’!!</p> <p>이후, 겨우 수소문한 동료의 눈앞에서 살해되고, 이 악물고 모은 돈이 계좌에서 전부 빠져나갔으며, 그동안 수행해왔던 위장 임무들이 치명적인 범죄로 몰린다. 지민은 엄격하게 지켜온 회사 규칙을 어기고 국정원에 비상 연락을 시도한다.</p> <p>접선 장소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구원자를 애타게 기다리던 지민. 하지만, 대선을 앞둔 권력자들의 암투로 국정원 위장회사 ‘미래정보’가 희생양이 된 사실을 알게 되고 크게 절망하는데...</p> <p>인생 최고의 위기에 몰린 지민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그토록 원했던 정규직을 되찾기 위해 국정원의 가장 깊은 곳 ‘존안 금고’로 잠입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일에 가려진 다국적 금융 정부 ‘씨드9’의 존재를 안 뒤 충격적인 진실과 대면하는데...</p> <p>극도의 좌절감에 빠진 지민을 집요하게 노리는 ‘씨드9’와 국정원 추격팀!!</p> <p>비인가 요원이던 지민은 악(惡)을 재생산하는 ‘씨드9’의 실체를 밝히고, 국정원 정규 요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p>
작품경쟁력 /기대효과	<p>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여성 캐릭터. 스릴러 장르에 충실한 재미와 반전, 통쾌한 휴먼 드라마. 영화 제로 데이(Zero Day)’를 기반으로 다른 미디어로 재생산 확대.</p>

작품 기획안(등장인물 소개)

구분	내용
등장인물 소개	<p>이지민(32) 국정원 위장회사 '미래정보' 소속 비인가 여자 요원. 해킹과 생존술에 능하며 말보다는 행동, 과정보다는 결과로 정규직 요원을 노린다. 그 흔한 스타벅스 한 번 간 적 없는 짚순이로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절대 못 참는다.</p> <p>최준서(28) 위장회사 '미래정보'에 파견 나온 새내기 국정원 정규직 요원. 지민과 같은 모의 해킹 팀원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다. 실력, 인성, 외모까지 3박자를 다 갖춘 훈남.</p> <p>강안(37) 지민을 쫓는 냉혹한 추격자. 조직의 명령보다 자신의 임무에 더 충실하다.</p> <p>장대환(43) 3대가 국정원 출신인 금수저 출신 상황실장. 우아한 워라벨 국정원 고위직이 인생 목표다.</p> <p>고진옥(43)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과 강직함으로 원장도 눈치를 보는 국정원 감찰국장. 외부 압력과 갖은 유혹에도 적절한 거리두기에 능숙하다.</p> <p>3차장(57) 원장 자리를 꿈꾸는 국정원 출신 3인자. 불같은 성격에 사우팅을 쏟아내지만 언제나 실리와 맥을 잘 집어낸다.</p> <p>맹승재(30) 스팸 메일과 각종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야매 프로그램 시장의 실력자. 권위적인 모든 것에 본능적으로 반발심이 솟구친다.</p> <p>이상호(38) 지민의 오빠로 유일한 혈육. 화재 사고 현장에서 다쳐 현재 요양병원에 있다.</p> <p>씨드9(SEED9) 조세 피난처로 연결된 베일에 가려진 다국적 금융 정부.</p>

시나리오 본문

1. 존안 금고

어두운 붉은 조명 아래 그 어떤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시간이 정지된 곳.
순간, 불이 켜지고 붉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모습이 드러난다.

하얀 서버들로 가득 찬 존안 금고.
‘우웅!!’ 소리와 함께 수많은 서버 점멸등이 일제히 깜빡거리다가 멈추고,
곧, 어두운 붉은 조명과 함께 깊은 정적 속으로 빠져드는 존안금고의 수많은 서버들.

2. 고층 빌딩 리셉션장/룸 - 저녁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식 준비가 한창인 리셉션장.
단상 위 프롬프터에 선언문이 올라오고, 관계자들이 선언식을 체크하느라 분주하다.

출마 선언문을 꼼꼼히 체크하며 걸어가는 여자 수석보좌관과 보좌1.

수석 (손으로 가슴 다독이며) 내 가슴이 다 떨려. 후보님은?
보좌1 (빙긔) 담담하시던데요. 워낙 준비된 후보님이시잖아요~
수석 다른 주자들이 끝까지 버텨줘야 후보 경선도 흥행할 텐데..
 너무 앞서 나가는 것도 걱정이야. (빙긔) 배부른 소리겠지?~~

보좌관1도 동의한다며 빙긔 웃고,
수석이 다가가자 방문을 지키던 경호팀이 깡뚝이 고개 숙인다.

수석 (긴장) 후보님 나가실 테니 준비해줘요.

경호팀, 무전기로 주변 상황 체크하고.
노크하는 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세찬 바람이 얼굴에 부딪친다.

보면, 활짝 열린 창문 앞에서 폰을 보며 서 있는 깨끗한 학자 스타일의 대선 후보(57).
들어온 수석과 보좌관1을 초점 없는 눈으로 바라본다.
짧은 한숨을 내뿜는 대선 후보, 폰을 쥔 채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진다.

‘아악!!’ 비명을 지르는 보좌1과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는 수석.
열린 창문 사이로 세찬 바람이 출마 선언문을 어지럽게 휘날린다.

3. 사이버 보안 교육장 - 오전

사이버 보안에 대해 강의하는 강사와 집중해서 수업 듣는 교육생들.
강사가 가볍게 손가락으로 제스처 하자, 공중에 동영상이 흐른다.

- 차세대 레이더망을 개발 중인 국방 연구소에서 불법 유출된 기밀 자료들.
- IDC(인터넷데이터센터) 화재로 멈춘 주식시장.
- 멈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집기를 부수며 거세게 항의하는 피해자들.

강사 올해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해킹 사건들입니다.
 인터넷 서버용 소프트웨어 'log9K'로 인해 기업은 물론 국책 연구소,
 정부 기관까지 심각한 해킹 위협에 노출되었죠.

동영상을 긴장한 얼굴로 보고 있는 교육생들.

강사 그리고 이건 엠바고 처리된 건데..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공개하는 겁니다.

강사가 손가락으로 제스처 하자, 얼굴을 찡그리는 교육생들.

- 고층 빌딩 밑 자동차 위에 추락한 피투성이 정장 남자.
- 컴퓨터와 폰에서 포렌식 된 미성년자 성매매 SNS와 문자들.
- 장례식장 앞에서 격렬하게 항의 시위하는 시민단체들.

강사 최근 언론에 떠들썩했던 사건이죠. 컴퓨터와 폰이 해킹당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결국 비극적인 선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진실은 뭘까요?

교육생들 (긴장된 눈빛들) ...

강사 모르죠. 아무도~~ 사람들에게겐 딱히 중요해 보이지도 않구요.
 결국 남은 건, 보안이 허술했던 폰과 컴퓨터에서 명백한 범죄증거가
 나왔다는 팩트뿐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씩씩하게 웃으며) 하지만 보이는 것이 거의 전부인 세상이기도 하죠..

다시 손가락으로 제스처를 하는 강사. 이번엔 숫자가 뜬다.

강사 32,467,347!! 이건 뭘까요? ..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닌, 하루 동안
 대한민국을 노리는 사이버 공격 횟수입니다. 대부분 장난이거나 호기심으로
 끝나지만, 누군가는 국가 첨단 산업단지, 국방 연구소, 핵발전소, 청와대,
 심지어 우리 계좌까지 노리죠. (미소) 다행히 우리 잔고가 많지 않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일 뿐이죠~

교육생들 (웃는 사람보다 걱정스런 얼굴들이다) ..

강사 이렇게 사이버 보안이 중요하지만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짧은 한숨) 그 이유를 아는 사람??

강사의 질문에 주위를 둘러보는 교육생들.

그때 앞 줄 끝에서 소심하게 손드는 뿔테 안경 낀 범생 스타일의 지민, 강사가 손짓한다.

지민 (쭈뼛쭈뼛) .. 실제 작업하는 사람은..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계약직이라...

강사 덩동댕~~ 회사의 중요 보안 이슈를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분들이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웃픈 현실 때문이죠. 더 황당한 건 회사 고위층이 사이버 보안
쪽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 .. 모르니까!! 그냥 폭탄 돌리기 하는 거죠.

강사의 냉소적인 말에 다들 침울해지는 교육생들.

강사 (미소) 그래서.. 불행 중 다행으로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건 여기서만 공개하는 영업 비밀인데..

교육생들 (눈빛들이 반짝거린다) !!

강사 면접 때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특히 최신 프로그래밍 언어를 뒤섞어
큰 소리로 떠들어대면 면접관들은 다들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모르는 거 티 내면 쪽팔리니까~ 입사 동기 중 한 명은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게임 쪽 언어로 면접 시간을 때웠는데.., 지금 잘 나가는
대기업 임원이 되어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교육생들 (다들 웃는다) ~~

강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강사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메타버스 교육장을 속속 빠져나가는 교육생들.
강사도 익숙한 듯 자료를 정리하며 나가는데,

(소리) .. 저기..

보면, 안경 낀 범생 스타일인 지민이 쭈뼛거리며 서 있다.

강사 재미없는 농담까지 반응해 주던데.. 수업이 쉽진 않았죠?

지민 .. 좀..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님 좋았어요...

강사 (미소) 그나마 다행이네~ .. 필요한 게..??

지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쭈뼛) 강사님 일하시는 곳에 취직하려면 어떤 준비를..

강사 (힐긋) ..학교나 전공은?

지민 ..지방대.. 한문학과요. 프로그래밍은 국비로 코딩학원에서...

강사 음... 솔직하게 말할까요? 희망찬 얘기 해줄까요?

지민 .. 솔직..요..

강사 학교, 전공 안 본다 그러지만, 개뽕이구요. 정규직은 대부분 내정됐다
보면 돼요. 이쪽 일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 알죠?!

지민 (완전 위축) ..

강사 이번에 회사에서 사람 뽑았는데, 2명 모집에 700명이 응시했죠.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에 실리콘 밸리 개발자들이 수두룩.

거기다 연봉 1억을 보장해주는 CISSP랑 CISA 자격증까지 있더라구요.

비정규직 자리인데도 말이죠. 솔직히 요즘 입사는 나라도 장담 못해요~~

지민 (거의 울상) .. 어.. 딱하죠..

강사 (지민을 보다 한숨) ..코딩한 거나 포트폴리오는..?

지민 (쭈뼛) 보여주기 부끄럽지만.. 짜 놓은 게 있긴 하거든요..

잔뜩 위축된 지민을 보던 강사, 손가락을 튕기자 메시지가 지민에게 날아간다.

강사 여기로 보내봐요. 대신, 피드백은 바로 못 해줘요.
지민 (꾸벅 꾸벅)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요즘 직장 구하기 진짜 힘들잖아. 구해도 거의 비정규직이고. 그래도
포기하지 마요. 어떻게 알아?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게 될 지~ 파이팅하고!!

지민에게 격려의 아이템을 선물한 뒤 메타버스 강의실에서 사라지는 강사.
강사 이메일 주소를 보는 지민, 소심해 보였던 얼굴에 묘한 웃음이 번진다.

4. 지민 집 - 오전

익숙하게 VR 글래스를 벗는 지민, 강사가 준 메일 주소로 준비해 뒀던 파일을 전송한다.
메타버스 속 모습과 달리 자신감으로 가득 찬 지민.
그때 ‘냐옹~’ 소리 들리고, 검은 고양이가 지민 다리를 잡아당기며 쳐다본다.
이어폰을 귀에 꽂는 지민!!

5. 도심 고층 빌딩 가 - 오전

빠른 음악과 함께 빌딩들 사이길로 달려 나가는 백팩을 맨 지민과 고양이.
장애물이 나타나자 파쿠르로 점프하고, 앞을 가로막는 높다란 벽을
암벽 등반하듯 도약해 뛰어넘어가는 지민의 거침없는 움직임!!
뒤따르던 고양이는 벽을 넘어가는 지민을 보더니 되돌아가고.

출근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지나쳐 고층 빌딩 숲 뒤쪽 건물로 뛰어 들어가는 지민.
빠르게 지하계단으로 내려가고, 음악 소리 더 커진다.

6. 지하 복도 - 오전

지하 건물 복도에 ‘미래정보’ 팻말이 적힌 평범해 보이는 폰 어플 개발 회사.
천장에 설치된 여러 대의 CCTV들이 사무실 주위를 빈틈없이 비추고 있다.

7. 미래정보 - 오후

빠른 음악 소리와 함께...
컴퓨터 언어와 숫자들이 모니터 속에서 떴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형형색색 네일이 키보드 위를 쉴 새 없이 움직인다.

여러 모니터 앞에서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지민.
겹겹이 쌓여진 네트워크 방화벽을 차례차례 뚫고, 침입 탐지 시스템(IDS)을
재빠르게 우회하며, 타켓인 서버 관리자 권한을 손에 넣기 위해 시도 중이다.
한쪽 모니터에는 해킹 추적 프로그램을 피해 쉴 새 없이 이동하는 지민의 접속 IP.

지민 옆에는 간간하게 보이는 상일(43)과 큰 덩치에 오덕스러운 두만(32)이가 추적 프로그램이 가까워지자 얼굴을 찡글이며 접속을 끊고 두 손을 든다. 반면에 단정해 보이는 준서(28)는 추적 프로그램을 가까스로 따돌리며 서버 1차 방어벽을 뚫는다. 서로 경쟁하듯 보안이 삼엄한 서버를 해킹하는 지민과 준서, 그 뒤로 반 대머리 오부장(54)이 침도 삼키지 못한 채 지켜보고 있다.

점점 다가오는 해킹 추적 프로그램!!
그때, 지민에게 보안 강의를 했던 강사에게서 답장 메일이 도착했다. 미소 짓는 지민, 메일을 열자, 강사 아이디어와 비밀번호가 뜨고, 해킹하던 서버 로그인 창에다 빠르게 입력하면, 스르르 화면이 떠오른다.

“陰地에서 일하고 陽地를 指向한다.” 라고 적혀진, 국정원 메인화면이다!!

지민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 조국에 대한 충성과 헌신??!!
 무슨 88 올림픽 해?! 홈페이지 좀 바꾸라니까. 진짜 개구려~
오부장 ..조심.. 조심.. 문제 생기면 바로 나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발..
지민 (키보드 입력하며) 부장님 우황청심환이나 챙겨드려. 저러다 또 쓰러지셔~
오부장 (해킹 추적 프로그램을 보며) 이번엔 본사야 본사!! 잘못되면 진짜 큰일..

오부장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해킹하던 국정원 서버 창에 엔터 키를 누르면, 순간, 여러 대의 모니터에서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기 시작하고, 바로 앞까지 쫓아왔던 해킹 추적 프로그램이 연기처럼 사라진다. 승리의 웃음을 짓는 지민과 못내 아쉬워하는 얼굴로 지민을 따라 접속하는 준서.

오부장 우와아!! 되네. 이게~ 본사가 알면 게거품 물 거야.. 비결이 뭐야?!
 (각종 장비들을 만지며) 이번에 장만한 green door 시스템??
지민 (빠죽) 기계에 돈 쏟아부으며 뭐해? 사람 뚫리면 게임 오버인데..
 인적 자원 중요한 줄 진짜 몰라요~
오부장 그래서.. 이번 미션 마무리되면 회사 규칙 어겨서라도 거하게 회식 쏜다!!
지민 회식은 무슨!! 그냥 수당으로 넘겨요. (포스트잇 보며) 이게 오늘 미션?

오부장, 준서에게 눈짓하자, 시계를 확인하던 준서, 고개 끄덕인다. 국정원 서버를 이리저리 탐색하던 지민의 눈빛이 반짝거리고, 순간 보이지 않던 새로운 폴더가 열렸다.

지민 (폴더를 검색하며) 어쭈.. 타임 리밋 인트라넷~ 보물이라도 물어놓으셨나?
두남 (가웃) 본사 시스템에는 등록 안 된 곳인데요?
지민 타임 리밋에다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 오늘 퀘스트가 개 찌네~
준서 (힐긋) 서버 액세스 확인까지입니다. 더 나가다간 추적당할 수 있어요.
지민 (피식) 취약점을 알려면 권한 획득은 기본이지.
 대단하신 본사 수준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준서 (얼굴이 굳어진다) ..
오부장 (긴장) 긴말 필요 없고 파일 하나만 심고 나와.
 증거는 남겨 놔야 탄소리 안 하지. 다른 건 절대! 네버!! 건달면 안 돼!!

지민, 새롭게 열린 서버 폴더를 빠르게 검색하는데,
순간, 비상벨 소리와 함께 회사 조명이 붉은색으로 변한다.
페이크 접속 IP를 뚫으며 맹렬히 쫓아오는 역추적 프로그램!!
60초, 59초, 58초.. 점점 줄어드는 타임 리미트.

두만 (모니터 확인하며) 아.. 이번엔 힘들겠는데요.
대역폭이 어마무시한 UWB(Ultra-Wideband)..
오부장 (얼마 남지 않는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휴....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망설이던 준서, 오부장이 쏘아보자 짧은 한숨과 함께 국정원 서버를 빠져나온다.
하지만 더 바빠진 지민.

오부장 뭐해?! 안 나오고.
지민 (키보드 빨라진다) 관리자 권한만 손에 넣으면 돼요.
오부장 상대는 본사야. 잘못되면.. 제로 데이 떠!
지민 (피식) 제로 데이는 무슨.. 고상하신 본사 정규직께서 그랬거든요.
아이비리그 졸업에 실리콘 밸리 출신 정도가 되어야
거우 본사에 들어온다고. 그것도 비정규직으로!!
오부장 개네들 시건방진 거 어제 오늘이야. 당장 나와!!
지민 걸리면 독단으로 모의 해킹했다 그럴게요.
상일 회사 감찰팀이 얼마나 독사 새긴 줄 몰라서 그래?!
(두만 쏘아보며) 뭐해? 빨리 안 끊고?!
두만 (지민 눈치 보며) ..지.. 금요일?? (슬쩍.. 네트워크 차단하려 한다.)
지민 (키보드 팡팡!! 두들기며) 손대기만 해봐!! 미래정보 신상을 다 까발릴 테니까!!
두만 (네트워크 차단하다 멈칫) !!
준서 (지민을 보며 사무적으로) ..선배. 30초.

준서의 경고에 더 빨라지는 지민의 키보드 소리, 하지만 눈빛은 더 예리해졌다.
점점 줄어드는 타임 리미트, 국정원 역추적 프로그램도 이제 페이크 IP 하나 남았다.

오부장 (기겁) 이러다 다 불려가!!
상일 (눈치 보던 두만을 보며) 뭐해?!! 선 끊어! 지금 당장!!
두만 (어쩔 수 없다는 듯 네트워크 선을 뽑으려고 한다) !!
지민 씨빨!! .. 할 수 있다니까!!!!
사람들 (침도 못 삼키며 지켜본다) ..
준서 (차분하지만 명확) .. 카운트 다운!! 10, 9, 8, 7..

얼굴이 시뻘게진 오부장, 망설이던 두만을 밀치더니 네트워크 라인을 뽑는데,
순간, 모니터 화면에 팍 뜨는 ‘관리자 권한’ 창!!
지민, 오부장을 힐긋 찌려보더니, ‘톡!’ 엔터 키를 가볍게 누른다.
순간, 요란하게 울려대던 비상벨이 멈추고, 역추적 프로그램도 스르르 사라진다.

획득한 관리자 권한으로 국정원 서버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지민.
그제야 한숨 내쉬는 사람들과 반쪽 민머리가 시뻘게진 오부장.

오부장 (폭발 직전이다) ..으으으... 이..지..민!! 회의실로 와. 팀원들 전부!!

썩썩거리며 회의실로 가는 오부장과 원망스런 얼굴로 뒤따라가는 팀원들.
지민, 입을 삐죽이더니 난감해하는 준서에게 파일을 복사한 USB를 넘긴다.

지민 저런 새 가슴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켜왔을까?! 미스터리야. 진짜~

8. 미래정보 회의실 - 오후

지민 앞에 ‘툭!!’ 던져지는 서류 뭉치들.
오부장과 준서, 팀원들이 얼굴이 굳은 채 지민을 쳐다본다.

지민 (힐긋) 뭔가요? (보면, 잔업 수당 청구서다)
오부장 ... 아무래도 지민씨는 우리 미래정보랑 안 맞는 것 같아.
잔업 수당 청구도 늘 오바고. 뭐든 자기 맘대로야.
지민 (냉소) .. 그래서요?!
오부장 사무실 규칙엔 오프라인 접촉은 절대 금지잖아. 근데 모의 해킹 타겟 쪽과
접촉했어. 결과적으로 미래정보를 위기에 빠트린 거야.
미리 (고개 끄덕이며) 자주 선을 넘긴 하죠.
상일 (불만스럽게 보며) 솔직히 주변 신경 안 쓰잖아. 최소한의 팀웍은 있어야지.
두만 (지민 시선 피하며) 일 잘하는 건 알겠는데..., 이젠.. 좀 힘드네요..
준서 (얼굴이 굳은 채 입을 꼭 다물고 있다) ..
지민 (헛웃음) ..규정.. 어겼나요?
오부장 우리 일이라는 게.. 규정 지키고 할 일은 또 아니지.
지민 (깊은 뻘찹) ..휴우.... 애매한 거 딱 질색이니까.. 하고 싶은 말 그냥 하시죠.

오부장, 준서와 다른 팀원들을 쳐다보자, 다들 마음을 굳힌 듯 고개 끄덕인다.

오부장 혼자 일하는 거라면 지금도 괜찮..
지민 (말 끊으며) 결과로!! ... (애써 삭히며) 증..명하는 거라면서요..
오부장 그래도 회사 분위기라는 것도 있으니까..
지민 ..크크크.. 그러니까.. 회사 수준에 맞춰라?!

지민의 냉소에 얼굴이 굳어지는 미래정보 사람들.

지민 (끓는다) 난.. 내가! 단 한 번이라도!! 평균이라 생각한 적 없어요!!!
팀원들 (얼굴이 더 무거워진다) ..
지민 (냉소) 본사 똥은 비결 물었죠? .. 7년 동안, 매일 야근에, 휴일도 없이
내 뼈와 살을 갈아 넣어 목표 초과 달성해왔어요. 햇빛 안 드는 이 지하
골방 사무실에서!! 오프라인 접촉 절대 금지?! .. ㅋㅋ..
이 일이 키보드만 두드리면 그냥 되는 줄 아나 봐? 웃기지도 않아 진짜!!
팀원들 (헛기침하며 불편해한다) ..
지민 (작정했다) 그동안 여기저기 구멍 뚫린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찾아

피드백해 준 곳만 수백 수천 군데구요. 국가 주요 전산망에 핵발전소,
심지어 VIP 집무실까지!! 나 아니었어 봐. 대한민국이 죄다 악성 해커들
놀이터 됐을 거야. 그런데 뭐?! 뭐든 내 맘대로고, 정규직 껌 값도 안 되는
잔업 수당도 인정 못 해 주겠다?! (회사 사람들을 하나하나 쏘아보며)
그래... 잘됐네!! 정규직 희망 고문도 지쳤고, 찌끄러기 수당 몇 푼
더 받겠다고 이 지랄 떠는 것도 견딜 수가 없어.

팀원들 (지민의 시선을 피한다) ..

지민 이까짓 것 관둘게요. 내 인생까지 비정규직 취급당하기 싫으니까!!
대신!! 오늘 근무한 거랑 지금까지 휴가 한 번 안 가고 일 한 것!!
빠짐없이 수당 처리하세요. 안 주기만 해 봐..
미래정보에서 한 일 모두 까발려 줄테니까!!

지민의 분노에 얼어붙은 오부장과 팀원들, 서로 얼굴을 보며 키득거린다.
짜증에다 분노까지 치미는 지민, 와락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그런 지민 앞에 스윽 내밀어지는 서류!!

오부장 (빠죽) 그럼 이걸 필요 없겠네?

지민 (나가다 힐긋) ..?!

오부장 목 빠지게 기다린 걸로 아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서류 가져오며) 정규직 신청자는 차고 넘쳤으니까.

두만 (서류 슬쩍) 싫다면 저라도.. 괜찮죠. 지민씨?

상일 (다시 서류 뺏고) 무슨!! 고참인 내 차례지. (지민 보며 방긋) 안 그래?

지민 (서류를 확 뺏아 확인하다 눈이 점점 커지며) ..이..거.. 장난.. 아니죠?!

팀원들 (다들 지민을 보며 웃는다)

지민 ..본사 정규직 발령.. 맞는 거죠?! .. 몰래 카메라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오부장 차라리 잘 됐다며? .. 이까짓 거 관둔다며??

상일 (씨익) ..미련 없다고 하지 않았나?

두만 여아일연중천금!! 두 말 하기 있기? 없기??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정규직 전환 명령서를 확인하는 지민.
준서는 환희에 찬 지민을 담담하게 바라본다.

오부장 (지민에게 봉투 건네며) 그리고 이걸.. 우리 미래정보가 주는 마지막 임무.
아직 해외여행 못 가봤다며??

지민, 봉투를 열면, 네팔행 비행기 티켓과 하얀 설산이 보이는 특급 호텔이다!!
축하해주는 오부장과 팀원들을 보며 눈앞이 시큰거리는 지민.

오부장 지금까지 햇빛 안 드는 지하에서 내 쫓스러움 참아내느라 수고 많았어.
휴가 갔다 오면 본사로 바로 출근해. 축하해. .. 이*지*민 요원~~

9. 빌딩 옥상 - 해 질 무렵

옥상 난간에서 정규직 전환 명령서와 비행기 티켓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지민.
그때, 지민 목에 걸리는 무엇!! 심플하고 세련된 하트 모양 패턴트 목걸이다.

돌아보면, 환하게 웃고 있는 미래정보의 막내, 준서.

준서 다음엔 더 크고 반짝이는 걸로 준비할게요~
지민 (비행기 티켓을 보이며) 같이 가면 더 좋았을 텐데..
준서 저라도 여길 지켜야죠~
지민 (얼굴 찡글인다) 또 부장님 호출?! 맨날 너만 부려 먹어!!
준서 (미소) 본사가 발각 뒤집어질테니까요~
 선배 정규직 축하 덕은 휴가 갔다 와서나 가능하겠는데요~
지민 (입을 삐죽) 회사 규칙상 사내 접촉은 금지일 텐데~
준서 (환하게 웃으며) 안 들킬 자신 있거든요~ 담에 여행 같이 가요. 꼭~~

지민을 뒤에서 따뜻하게 안아 주는 준서.

지민 목에 걸린 목걸이 패턴트가 붉은 노을에 반짝거린다.

10. 미래정보 - 저녁

마무리 작업으로 바쁜 지민, 퇴근하는 팀원들이 다가온다.

상일 첫 해외 여행이라며. 푸른 바다나 가지 웬 눈 덮힌 산?!
지민 보여 줄 사람 있거든요~
상일 ..누구... 남친??
지민 (웃는다) ..
상일 (씨익) 하여튼.. 휴가 선물 생까기만 해 봐.
 본사에 정규직 전환 이의 신청할 거야? 내 뒤 끝 알지?
두만 (슬쩍 문서 건네며) 네팔 맛집 리스트구요. 현지인만 가는 곳이래요.
상일 여행 오덕께서 며칠, 날 밤 샌 거야~
지민 (문서 보며) 혼자 가려니까 좀 그러긴 하네~
상일 웬 감동?? 월차, 연차 모조리 다 쓰고 와. 그동안 진짜 수고 많았어~
 (슬쩍) .. 승재는.. 연락돼?
지민 (미소) 모르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왜요?!
상일 부장님이 묻더라구. 오늘도 여차했으면 불미스러운 일 일어날 뻔 했잖아.
 승재.. 그렇게 처리했던 게 맘에 걸렸나 보지. .. 신경 써지마~

어색하게 웃는 지민에게 손 인사하고 나가는 상일과 두만.

미리 (가방 챙겨 나오며) 여행 준비로 바쁘지 않아요?
지민 우리 새가슴 부장님.. 휴가 간 데까지 연락 못 오게 만들어야지.
미리 혼자 괜찮겠어요? 그래도 막 날인데..
지민 편해. 이게~
미리 (부럽다) 매일 마지막에 퇴근하더니 정규직에, 휴가까지!!
 율로니, 워라벨이니, 조용한 퇴직 따라 하다..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요.
지민 너도 곧 정규직 될 거야. 가기 전에 저녁같이 먹자~
미리 (목소리 줄이며) 사적 접촉 금지 규정 어겼다고 부장님 게거품 물 텐데요~
지민 (목소리 더 줄이며) 그러니까 우리 둘 은밀하게~~
미리 언니라면 무조건 콜이죠. ㅋㅋ.. 정규직.. 진짜 축하드려요~

(나가다 돌아서며) 언니는 그럴 자격 있어요. 충분히!!

미리가 인사하고 나가자 사무실에 혼자 남은 지민,
주변을 둘러보고, 사람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컴퓨터에서 멀티 부팅을 한다.
곧, 다른 화면이 나타나고, 숨겨져 있던 폴더가 모습을 드러낸다.

‘전리품’이라고 적힌 폴더에 암호를 입력하자 주르륵 뜨는 파일들.
7년 동안 모의 해킹 때 회사 몰래 보관해두었던 파일이다.
붉은 USB를 꽂은 뒤, 전리품 폴더에 있던 파일을 이동하는 지민.
그런데, 파일 하나가 지연된다.
확인하려는데, 그제야 전송이 완료되는 전리품 폴더 파일!!

붉은 USB를 뺀 뒤 일어나는 지민, 준서가 선물한 목걸이 팬텀트를 만지작거리는데,
그때 폰 울리고, ‘애물단지’라고 적힌 번호다.

전화를 무시하고, 자리를 정리한 뒤 일어서는 지민,
나가다 익숙하게 사무실 커피 스택을 한 움큼 가방에 챙겨 넣고,
7년 동안 자신을 갈아 넣은 ‘미래정보’를 물끄러미 둘러보다 불을 끄고 나간다.

11. 빌딩 근처 도로 - 저녁

도로 위 차 안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는 강안(38), 잘 갈린 면도날처럼 서늘한 인상이다.
폰으로 전송되는 메시지.

(메시지)

우회 IP 사용으로 발신처 추적 불가.
UWB 전환 중 반경 100미터에서 신호 끊김.
조속히 복귀 바람.

무표정한 얼굴로 메시지를 지우는 강안, 자동차를 출발한다.
그 뒤로 환하게 불을 밝힌 초고층 빌딩들이 보여진다.

12. 백화점 매장 앞 - 저녁

먹이를 노리듯 쏘아보고 있는 지민.
앞에는 쇼 윈도 너머로 양증맞게 빛나는 금장 샤넬 미니 백이 보인다.
한참을 보다 한숨을 내쉬는 지민, 자리를 떠나고.
하지만 다시 돌아와 샤넬 미니 백을 뚫어지게 노려본다.

지민 그래... 넌!! 자격 있어!!

숨을 크게 내쉰 뒤, 화려하게 빛나는 샤넬 매장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는 지민.

13. 술집 - 밤

"마셔라! 마셔라! 술이 들어간다~ 쪽쪽쪽쪽~! 쪽쪽쪽쪽~!"

시끌벅적한 술집에서 동기들과 술 게임을 하고 있는 지민.
옆에 새로 산 샤넬 미니 백이 빛난다.

여친구1 (잔 부딪히며) 기집애.. 뭘 하느라 코빼기도 안 비춰?
남친구1 공무원 준비했다며?
지민 (술 마시며) 공무원은 무슨..
여친구2 (샤넬 미니 백을 보며) 어머머.. 귀엽다~ 신상?
여친구1 남친 선물..??
지민 (빙긔..) .. 나를 위한 선물~
남친구2 오호... 요즘같은 불경기에.. 회사가 좋은 덴가 봐. 어딘데?
지민 말해도 몰라. 네이버에도 안 나오는 곳이니까.
여친구1 (술잔 부딪치며) 얼굴이 썩어. 확~~
여친구2 맞아 맞아~ 이전에 구로 디지털 역에서 봤을 때 얼굴 진짜 썩었었거든.
지민 지금은 강 대학생이야~ .. 무슨 관리 받아? 시술??
여친구1 기집애. 서로 정보 공유하며 살자. 뭔데?
지민 (술잔 들며) .. 이거 진짜 비밀인데...

지민의 말에 귀를 쫑긋하는 친구들.

지민 ..정.규.직..?? (웃으며 술 마신다)
여친구1 (실망.. 술 마시며) 하긴.. 속이 편해야 겠도 윤이 나지. .. 난 언제 되냐?
여친구2 (술 들이키며) 어우,, 포기했어.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남친구1 (안주 먹으며) 정규직 돼봐야 별것 없어. 일만 많고. 책임도 무진장이야.

다들 쏘아본자, 얼른 시선 피하며 안주 먹는 남친구1.

지민 (술 마시며) 꼭 저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갑질한다니까. 저 봐.
눈치 없이 안주 밝히는 거. (술 잔 부딪치며) 넌 정규직이니까 술값 내!!

흥겹게 술잔을 부딪치는 지민과 친구들, 그러다 순간 얼음이 된다.
보면, 고급스런 정장 차림에 사람 좋아 보이는 용훈이가 지민을 보며 당황해한다.
그런 용훈을 보며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지민.

14. 전철역 앞 - 밤

미니 샤넬 백을 든 지민, 전철역 출구로 내려간다.
그때 "지민아!!" 고개 돌리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가오는 용훈.

용훈 (숨을 헐떡이며) ..헉헉.. 다행이다. 못 볼 줄 알았는데.. .. 괜..참지?

지민 네가 더 안 괜찮아 보여~
 용훈 ..잘.. 지내?
 지민 (미소) 네 덕분에~
 용훈 (말문이 막힌다) 상호 형 말이야.. 한 번 찾아간다는 게..
 지민 (말 끊으며) 다들 바쁘잖아. 넌 결혼도 했고. 신경 꺼.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자 명함을 꺼내 지민에게 건네는 용훈.

용훈 ..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명함을 얼른 주고 왔던 길로 서둘러 되돌아가는 용훈.

명함을 보던 지민, 뽁뽁 구긴 뒤 바닥에 던지고, 기분 좋게 샤넬 백을 둘러매고 돌아선다.

15. 안나푸르나 빙벽 - 새벽

‘휘잉~~’ 세찬 바람 소리와 함께 새하얀 설원이 펼쳐져 있다.

깎아 지른 빙벽을 손에 쥔 아이스바일과 신은 크램폰으로 숨을 몰아쉬며 올라가는 지민.
 귀를 때리는 바람과 거친 눈보라에도 한 발 한 발 정상을 향해 내디딘다.

마침내 정상을 앞둔 지민, 손이 닿기에 멀어 보인다.

연신 호흡을 가다듬더니 온 힘을 다해 점프하는 지민.

순간 ‘아악!!!’ 까마득한 빙벽에 몸이 부딪치고, 튕겨 나가며, 끝없이 아래로 내려 쏘인다.

‘STOP!!!!’ 순간, 떨어지던 지민이 공중에서 멈추고, 눈앞에 붉은 점수가 뜬다.

곧, 주위가 빙벽 맨 아래 출발점으로 변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지민.

코난 (다가오며) ㅋㅋ.. 죽었다 깨어나도 이 스테이지.. 클리어 못 한다니까~

빙벽 밑 대기자 중에서 심술 맞아 보이는 10대 소년이 히죽거린다.

지민 닥치시지.

코난 이 스테이지 만든 새끼.. 안나푸르나 근처에 안 가봤다에 전 재산 건다.
 그러니까 레벨 디자인을 이따위로 하지. 직접 올라가는 게 더 쉬울지 몰라~

지민 그래서 확인해 보게.

코난 어딜?? .. (지민을 보다 헐!!) 진짜 안나푸르나에??!! 짬순이 네가 어쩔?!

지민 (비행기 티켓을 공중에 띄우며) 내가 올릴 안나푸르나나 감상하지.
 여기서 불법 스팸 메일 그만 거 팔지 말고.

코난 불법 스팸 메일이라니.. 손 뺏다니까!!

지민 괜히 걸려 나까지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아냐. 지금 당장 떨어줘??

코난 하여튼 성질머리하곤... 가서 콧 얼어 죽어버려라.

썩썩거리며 안나푸르나 빙벽 스테이지에서 나가버리는 코난.

곧, 대기자 중에서 귀여운 곰 모자에 배낭 멘 여중생 같은 레인(14)이 다가온다.

레인 진짜 가요? 안나푸르나??
지민 정상에서 초대할게.
레인 ..그 기능 유료라 안 되는데..
지민 우회 방법 있거든~
레인 (반색) 정말요?!!
지민 너도 참.. 중학생이 암벽 클라이밍이 뭐냐?
레인 헤헤~~ 산 좋아하는 아빠 덕분이죠~ 언니는요?
지민 (씹쓸하게 웃으며) 안나푸르나 올라가는 게 소원인 사람 있었거든..
나 없는 동안 코난 자식 물 흐리면.. 바로 강퇴 신고해.
레인 (손 흔들며) 언니도 몸 조심하구요. 안나푸르나에서 꼭 초대하גיע요~~

레인이 손 흔들고 나가자, 안나프루나 스테이지에 혼자 남은 지민.
그때 폰 소리와 함께 지민 시야로 전화번호가 뜨고, 또 '애물단지'다.
한숨을 내쉬는 지민, 손으로 스와이핑 하면,
새하얀 안나푸르나 빙벽이 지민 방으로 변한다.

16. 지민 방 - 밤

힘없이 VR 글래스를 벗는 지민.
방 안에는 여행 갈 물품들과 ECD(서바이벌) 키트, 노란색 여행용 트렁크가 있다.
그 가운데 윤기 나는 검은 털에 노란 눈의 고양이도 무료하게 지민을 쳐다본다.
계속 울리는 전화 소리에 한숨을 내쉬더니 폰 앱을 켜고 자리를 잡는 지민.
앱 트레이너 소리와 함께 팔굽혀 펴기를 시작하고, 올려대는 애물단지 전화를 받는다.
훈련하는 지민을 보며 일어나 몸을 쭉 펴는 검은 고양이.

지민 (팔굽혀 펴기 하며) 저녁은?
애물단지 (소리) 맛 없어..
지민 .. 헉! 헉!! 맛으로 먹냐?!
애물단지 (소리) 죽기 밖에 더 해?
지민 (멈칫) 아 킹 받게.. .. 누구 때문에.. 개고생하는데!!!

지민의 날카로운 소리에 지민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검은 고양이.

애물단지 (소리) (거친 숨소리 빨라진다) 후우.. 후우.. 후욱..
지민 (얼굴 찡그리다 다시 팔굽혀 펴기 하며) 카운트는?
애물단지 (숨소리 커지고) ..후.. 후!!
지민 (눈치 살피다 버럭) 체크하고 있냐구?!!
애물단지 (소리) (무덤덤) .. 50% 남았어.

'넥스트 레벨!!'이라는 앱 소리에, 이번엔 능숙하게 물구나무를 서는 지민.
얼굴이 시뻘게지고 땀이 맺히지만, 이 악물고 물구나무 팔굽혀 펴기를 한다.
훈련하는 지민 주위를 왔다갔다 하던 검은 고양이, 이번엔 지민 몸 사이를 거닌다.

지민 (숨 몰아쉬며) .. 헉!헉!! .. 내일 출장 가. 해외로..
 애물단지 (소리) .. 해..외?? .. 위험해...
 지민 이번에도 안 가면 찔려.
 애물단지 (소리) (거친 숨소리) 혹!.. 혹!!
 지민 (팔굽혀 펴기 멈추며) .. 듣고 있는 거야?!
 애물단지 (소리) 대신 약속...
 지민 (멈칫) .. 무슨??
 애물단지 훈련!!
 지민 당근이지. 내 기록 전송되잖아~
 애물단지 (소리) (거친 숨소리) 혹!.. 혹!!.. 20% 남았어

그제야 한숨을 내쉬는 지민, 다시 물구나무로 팔굽혀 펴기 하고.
 땀 흘리는 지민 주위를 어슬렁거리던 검은 고양이, 길게 하품하더니 지민 옆에 드러눕는다.
 몸이 심하게 떨려오지만, 여행 트렁크와 샤넬 미니 백을 보며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 지민.

17. 인천 공항 안 - 아침

‘스르륵~’ 경쾌하게 굴러가는 노란색 여행용 트렁크.
 샤넬 미니 백을 어깨에 메고 흥얼거리며 걸어가는 지민, 회사 블록체인 단톡을 연다.
 ‘갔다 올게요~~’ 메시지를 보내려다, 지우는 지민.
 그때 폰이 울리고, 또 애물단지다.

지민 (목소리 최대한 밝게) 좋은 아침~
 애물단지 (소리) 아무래도 안 되겠어.
 지민 (얼굴 찡글인다) 아... 뭐가 또..
 애물단지 (소리) 위험해.
 지민 (짜증) ..하.... 그럼 가지 마? 회사 찔리면 병원비는??
 애물단지 (소리) 필요 없다 그랬잖아.
 지민 재미친!!! 매일 야근에 남들 다 쉬는 휴일에도 쥐꼬리만 한 수당 챙기느라
 개고생했는데.. 뭐?! 필요 없어?? 그럼 당장 나가 죽든가 알아서..

그때 ‘쿵!!’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히는 지민.
 몸이 휘청대지만, 새로 산 샤넬 백을 온몸으로 껴안으며 가까스로 버틴다.
 덕분에 지민의 물건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인파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사내.

지민 (죽일 듯 쏘아보며) 이런 히벌 놈이...

썩썩대다, 사방으로 널브러진 물건들을 챙기는 지민.
 그러다 멈칫!! 화려하게 붙인 네일이 부러져 있다.
 그때 또 걸려 오는 애물단지 전화.
 헛웃음 짓는 지민, ‘아아악!!!!’ 비명을 내지르며 신경질적으로 폰을 꺼버린다.

18. 공항 보안 검색대 - 오전

‘후다닥..’ 공항 보안 검색대로 달려온 지민,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자, 5분 남았다.

지민 (검색대 긴 줄을 보며) ..빨리.. 빨리...

지민 앞에 있던 남자, 안절부절못하는 지민을 보고 웃더니 순서를 양보한다.
고맙다며 인사하고, 샤넬 백을 조심스럽게 검색 바구니에 올려놓고 검색대로 가는 지민.
보안요원이 X 레이 화면으로 샤넬 백에 담긴 화장도구와 생존 키트를 예리하게 살핀다.

19. 공항 게이트 - 오전

‘헉! 헉!!’ 출국 게이트로 달려오는 지민.
티켓팅을 마무리하던 항공사 직원이 미소 짓는다.

여직원 마지막 승객이시네요~ 티켓 확인할까요?

거센 숨을 몰아쉬던 지민,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고 게이트 안으로 들어간다.
그때, 지민을 가로막는 공항 출입국 남직원.

남직원 이지민씨 되시죠?

20. 공항 터미널 복도 - 오전

지민의 노란색 여행용 트렁크를 끌고 오는 공항 직원.

남직원 방송, 전화.. 수십 번 드렸거든요.
 (트렁크를 건네주며) 기내 반입 금지 물건이 발견되어서요.

남직원 손에는 노란 액체가 든 유리병이 들려져 있다.

지민 ..이거.. 진짜 내꺼 아니라니까요!!

남직원 (단호) 1급 인화성 물질이라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폰이라도 켜두셨으면 연락됐었을텐데.. 공항 보안기준이 강화됐거든요.
 다시 티켓팅하셔야 될 겁니다.

남직원이 자리를 떠나자, 허망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는 지민.
창문 너머로 활주로에 있던 여객기가 빠른 속도로 하늘로 치솟는다.

어이없어하는 지민, 폰을 켜자, 주르륵 떠오르는 수십 개의 수신 기록들.
공항 전화와 ‘애물단지’ 전화번호다!!

21. 요양원 병실 밖 - 오전

툑툑거리던 전기 기사가 고장 난 배전반을 들고나온다.

화난 얼굴로 지민 앞에 차트를 보여주는 간호사.

간호사 환자는 난리지. 보호자는 전화 안 받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증말..

지민 (고개 숙인다) ..

간호사 그리고, 전기랑 무슨 원수졌어요? 맨날 배전반은 왜 건딘데??

 감전돼서 우리 다 죽을 뻔했다구요!!

지민 (짜증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다) ..

간호사 다른 환자처럼 거동이라도 못하면 어떻게라도 해보겠는데..

 고집과 힘은 또 얼마나 장사인지.. 아시죠?!

지민 (헛웃음) 그러게요~ 못 움직이든지, 의식이 없든지 그래야 되는데..

 (서늘) 약 먹이든, 주사 놓든.. 알아서 어떻게 좀 해줘요!!

간호사 .. 네..?!!

지민 아냐.. 사망 처리는 안 되냐?

 (표독스럽게 웃으며) 저 인간 때문에 매일 허 꼭 깨물고 죽을 생각 하거든요.

지민의 독기에 병찐 간호사, 그때 병실 안에서 우당탕 물건 부서지는 소리 들린다.

22. 요양원 병실 - 오전

기름진 머리에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환자복 입은 상호가 병실 물건을 내던지고 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익숙하게 치우는 지민.

지민 열 일 하셔~

상호 (물건을 던진다) ..위험해..

지민 (다시 물건 주으며) 그래.. 이참에 다 부서라. 부서..

상호 (물건을 들어 지민에게 던진다) 위험하다니까!!

지민 (물건 제자리 놓으며) 여기 쫓겨나면 더 갈 데도 없어.

상호 (지민을 팔로 내리치며) .. 세상이 위험해!! 위험하다니까!!!

지민 (내려치는 팔을 꼭 잡으며) 안 된다 했지!! 폭력 쓰면!!!

상호 (발작하듯 잡힌 팔을 뿌리치며) 악!! 악!!

지민 (점점 눈빛 흔들리며) ..이러지 마.. 제발.. 나.. 좀 봐줘라. .. 오빠..

죽일 듯 위협하는 상호 팔을 가까스로 붙잡고 있는 지민,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다.

23. 요양원 밖 - 오후

요양원 문을 열고 노란색 여행용 트렁크를 끌며 힘없이 나오는 지민.

폰을 열어 연락처를 보지만 딱히 만날 사람이 없다.

폰을 이리저리 확인하다 은행 잔고를 여는 지민,

계좌 2곳에 71,647,580원과 20,000,000원이 찍혀 있다.

지민 (샤넬 백을 보고 한숨 쉬며) 그래.. 내 인생에 무슨 휴가.. 수당이나 챙기자.

24. 회사 복귀 몽타쥬 - 오후

- 덜컥거리는 전철 좌석에서 졸고 있는 지민, 문 열리는 소리에 놀라 깨더니 얼른 내린다.
- 노란색 여행용 트렁크를 끌고 텔레텔레 미래정보 빌딩으로 들어오는 지민, 지하 계단을 뚝뚝 내려간다.
- ‘미래정보’ CCTV 카메라 앞에서 장난스럽게 이리저리 얼굴을 보이며 들어가는 지민. 곧, 다시 나와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지민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하다.

(소리) 에이.. 뭔가 착오가 있겠지~

25. 지하 미래정보 앞/안 -오후

당황한 지민과 함께 미래정보 사무실로 들어오는 수위, 멈칫거리며 주변을 둘러본다. 보면, ‘미래정보’가 사라졌다. 먼지 하나 없이!!

26. 미래정보 빌딩 로비/빌딩 앞 -오후

지하 계단으로 올라오는 지민과 수위.

수위 휴가 간 사이에 이사 간 거 아냐? 종종 그런 적 있거든. 전화 해봐.
지민 (답답) 연락처 없어요.
수위 (가웃) 없더니? .. 회사 사람들이랑 사이가 안 좋남?!
지민 (더 답답) 아.. .. 그럴 일 있다니까요..

폰으로 회사 블록체인 단톡을 다시 확인하는 지민, 발걸음을 멈춘다.
분명, 아침에 확인했던 미래정보 단톡이 사라졌다.
그때 지민 폰으로 메시지가 날아든다.

메시지
제로 데이

지민 (가웃) ..제로.. 데이??

뭐지.. 이게?? 메시지 확인하면, 발신자 제한 번호다!!
순간,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는 지민.

그제야 지민 시야에 들어오는 수상쩍은 움직임들.
지민 뒤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라오는 이어폰 낀 두 남자와
회사 길 건너편 자동차 안 사내들이 지민 쪽을 지켜보고 있다.

폰으로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는 지민.

지민 (눈이 커지며) .. 제로 데이.. 제로 데이..

순간, 트렁크를 끌고 달리기 시작하는 지민.

동시에 주위에 있던 사내들도 일제히 지민을 뒤쫓는다.

27. 도심 도로 - 오후

여행용 트렁크를 끌며 달리는 지민, 목에 맨 샤넬 백이 이리저리 흔들린다.

뒤쫓아오는 이어폰 사내들의 손아귀가 곧 닿을 것 같다.

이 악물고 달리던 지민, 어쩔 수 없는 듯 트렁크를 뒤로 확 밀어버리고,

그 바람에 트렁크와 함께 우당탕 나자빠지는 사내들.

샤넬 백을 가슴에 품고 달리는 지민, 망설이다 차가 지나치는 도로로 뛰어든다.

‘끼익!!’ 요란한 소리를 내며 급정거하는 자동차들!!

그 자동차 본넷을 파쿠르 하듯 뛰어넘어가는 지민.

뒤쫓던 사내들, 지나가던 자동차에 치이고 부딪혀 도로가 난장판으로 변한다.

28. 도심 골목 - 오후

가슴이 터져라 달리는 지민!! 그 뒤를 바짝 뒤쫓는 사내들. 점점 거리가 좁혀지고.

지민 앞에 두 갈래 골목길이 보인다.

그때 울리는 폰, 메시지 확인하면,

메시지

왼쪽 막혔어. 오른쪽!!

달려가던 지민, 메시지를 보며 갈등하는데, 오른쪽 대신 왼쪽 골목길로 달려 들어간다.

그러다 움찔!! 앞에 키 3배 정도의 높은 벽이 가로막고 있다.

뒤따라오던 사내들이 숨을 세차게 몰아쉬며 지민에게 다가온다.

입술을 깨무는 지민, 막혀있는 높은 벽을 향해 내달리고,

‘타앗!’ 벽을 차고 올라가 다시 위로 도약하는데,

‘악!!’ 벽에서 주르륵 미끄러지는 지민, ‘텍!!’ 간신히 벽 중간에 매달린다.

벽 중간에 매달려 바둥거리는 지민을 보며 비웃음 짓는 사내들.

키 큰 사내 둘이 양쪽에서 올라가 지민 발목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다.

이를 악다문 지민, 온 힘을 다해 튀어나온 구조물로 몸을 날리고.

‘콵!!’ 손가락으로 구조물 끝을 아슬아슬하게 붙잡는 지민,

그 반동을 이용해 옆에 있던 장애물을 박차고 올라가

‘타탁!!’ 암벽 등반하듯 가까스로 벽 정상에 멈춰 선다.

멍하게 바라보는 사내들을 확인하더니, 벽 뒤로 사라지는 지민.

그제야 당황한 얼굴로 뒤따라 올라가는 사내들, 그러다 바닥으로 꼬꾸라지고,
황급히 일어나 다른 쪽으로 지민을 뒤쫓는 사내들.

29. 근처 도로 자동차 - 오후

도망치는 지민과 뒤쫓는 사내들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누군가.
공항에서 지민과 부딪치고 인파 속으로 사라진 강안이다.
자신의 폰에서 빨간 점이 멀어지자, 천천히 SUV를 출발시킨다.

30. 국정원 회의실 - 오후

넒찍한 회의실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티타늄 안경을 낀 국정원 상황실장 장대환(45).
고가의 바쉐론 시계를 확인하더니 오만인상을 다 쓴다.
그때 “덜컹!!” 문 열리며 반백의 국정원 3차장(57)과
흐트럼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감찰국장 진옥(45)이 회의실로 들어온다.
엉거주춤 일어나는 대환, 자료를 보며 브리핑하는데...

3차장 (손으로 저지) 됐고!! 솔루션부터!!
대환 현재 사이버 범죄 전과자를 중심으로 추적 중인데..
3차장 ('퍽!!' 조인트 까며) 아직 못 찾았다 이 말이제?!
(연달아 조인트 까며) 회사가 동네 피씨방인가? 메인 서버가 뚫리게?!
대환 (찢뚱) 이번 상황이 워낙 예외적이고 변수가 많아..
3차장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아나?!
대선 앞두고 회사가 구조 조정 중이야. 탈 나면 바로 낙동강 오리알되뻔다!
대환 (얼굴 찡글인다) ..
3차장 분명히 뒷배가 있어. 찾아내. 무조건!!
진옥 (끼어들며) 그것보다 먼저 처리하실 게 있습니다만..
3차장 (기가 차다) 하... 회사가 털렸는데 더 급한 게 있다고?!
(물 마시며) 와? 북에서 핵이라도 쏜다 카더나?
대환 (한 숨 쉬며 진옥을 본다) ..
진옥 .. 벽서.. 파일입니다.
3차장 (마시던 물이 목에 콕 걸렸다) 켱!켱!! .. 뭐라꼬? 벽서??!! 그게 와??
진옥 이번에.. 유출된 것 같습니다.

놀라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3차장, 숨을 몰아쉬는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하다.

31. 유럽 고성 복도 - 오후

유럽 고성 위에 까마득히 높은 탑이 보인다.
끝없이 위로 이어진 음습한 계단을 힘겹게 올라가는 백팩 맨 여중생 레인

(15썬 안나푸르나).

탑 꼭대기에 있는 거대한 석문 앞에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옷을 가다듬는다.

32. 고성 원탁 회의실 - 오후

고풍스런 석재로 만들어진 천장이 높은 원탁 회의실.

비현실적으로 커다란 대리석 원탁에 갑옷과 투구 쓴 기사들이 앉아 있다.

미소년(원탁5), 근육질 전사(원탁4), 카리스마 넘치는 중년 기사(원탁3),

요염한 마녀(원탁2), 흰 수염 현자 노인(원탁1).

원탁1 (담담하게) 유력 대선 후보가.. 사망했습니다.

원탁2 (피식) 꼬장꼬장해서 더 버틸 줄 알았는데.. 싱겁게 가버렸어~

원탁3 ..개미친!! 사고 현장에 있었는데 진짜 깜놀했다니까!! 조용히 좀 가지...

원탁4 (표독) 사돈집은 세무조사, 아들과 마누라는 감옥 가게 생겼고,

거기다 여중생 동영상까지 나왔는데 무슨 수로 버텨?!

뒤통수 때까지 찌르고, 후벼 파질텐데요.

원탁2 (히죽) 좋은 본보기가 됐겠쥬~

원탁1 (고개 끄덕이며) 다들 힘을 보탠 덕분입니다.

원탁5 .. 근데 진짜입니까? 그 여중생 동영상 말입니다.

원탁4 (거드름) 제가 지난 정부에서 그쪽을 담당해봐서 잘 아는데...

팩트 한 조각에 MSG 쳐서 이슈 만들어내면, 사람들은 이편저편 찢어져
무조건 개싸움 납니다. 팩트니 진실이니 그딴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원탁5 그래도 맘이 바뀌어 양심고백이라도 하는 날이면..

원탁1 SNS에서 몸팔던 여자에 말을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게다가.. 죽은 사람은 말이 없쥬~

원탁1의 말에 탐욕의 미소가 번지는 기사들.

그때 ‘끼이익!!’ 거대한 석문이 열리고, 레인이 들어온다.

높은 단 위 5인의 기사 앞에 고개 숙여 무릎 꿇는 레인, 감히 올려다볼 엄두도 못 낸다.

원탁3 (힐긋 내려다보며) 솔져 따위가 우릴 급하게 보자고 했다면?

원탁2 다들 바쁜 몸이라.. 별 게 없으면 네 몸 한 쪼가리는 내놔야 할 거야~

단 밑에서 고개 숙인 레인, 5인의 기사를 천천히 올려다본다.

레인 벽서 파일이 나왔습니다.

기사들 (일제히 레인을 쳐다본다) !!

원탁2 ..벽..서.. 라고 했나??!!

원탁3 벽서라면... 세상이 뒤바뀔 때마다..

원탁1 (고개 끄덕이며) 늘 벽서 파일이 있었쥬.

원탁4 와우!! 폐기된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보람이 있네~ 언제 봐?

레인 곧,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원탁3 벽서 파일만 손에 넣으면 그동안 시건방 떨던 것들 목을 잡아챌 수 있어요.

원탁2 (목소리가 커지며) 근본없는 3류들이 잘 난채하고, 설치하는 거..

더 이상 천불이 나 못 참겠어요. 대청소해야 합니다.

원탁4 내 말이!! 세상이 너무 해이해졌어. 이참에 흐트러진 질서를 다 잡아야 돼!!

각자 속내를 드러내는 원탁의 기사들, 말없이 레인을 지켜보던 원탁1의 눈치를 살핀다.

원탁1 (레인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 LJ1497.

레인 (고개 조아리며) LJ1497!!

원탁1 씨드9의 킹게서도 주목하고 있어.

 벽서 파일이 우리 손에 들어오면 친람(親覽)하실 예정이야.

기사/레인 (다들 긴장한다) !!

원탁1 무조건 손에 넣어. 네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레인 (바닥까지 머리 숙이며) OBOEDIO(복종하겠습니다)!!!!

레인의 결의에 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동시에 스르르 사라지는 5인의 기사들.
단 위에 있는 빈 원탁을 올려다보는 레인, 눈빛이 꿈틀거린다.

33. 지하철 -저녁-

혼란스러운 얼굴로 '제로 데이' 메시지를 보고 있는 지민.
덜컹거리는 전철 소리와 함께 이전 기억이 치고 들어온다.

(F.B.)

사무실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고 있는 지민과 미래정보 사람들.

오부장 (취기) 나 때는 말이야!! 일 분 일 초를 아껴가며 이 나라를 지켜왔어.

 근데 요즘 것들은 전부 지들이 최우선이야. 이러니 대한민국이 위기자.

지민 (술 마시며) 위기는 부장님이죠. 동기들은 전부 국장 자리 다 꿰찼다면서...

오부장 (울컥) 책상 위에서 펜대나 굴리던 놈들이 뭘 안다고..

 (안경을 머리 위로 올리며) 니들도 내 꼬라지 안 되려면 잘 들어!!

사람들 (술 마시다 오부장을 힐긋 본다) ..

오부장 폰에 이것 뜨면.. 무조건 잠수 타!!

두만 (긴장) ..뭘..데요.. 그게..?

오부장 (술 마신 뒤 의미심장하게) .. 제로 데이..

상일 ..제로.. 데이라면.. 보안 취약점요?!

오부장 (고개 저으며) 이머전시 코드 네임.

지민 .. 비상,, 코드 네임...요??

갑자기 진지해진 오부장 말에 사람들이 긴장한다.

오부장 (팀원들 얼굴 보며) 제로 데이 뜨면.. 모든 흔적 다 지우고 무조건 도망쳐.

 폰, 카드, 메일, 당연히 회사와도 절대 접촉 금지!!

미리 (겁먹었다) .. 그럼.. 어..뎅게 되는데요?

오부장 (술 마시며 얼굴 더 무거워진다) .. 구원자가 찾아갈 거야.

지민 .. 구..원자???!!

오부장 (비장감) .. 본사 특수전 지원팀인데 유일한 희망이지.
구원자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믿어선 안 돼. 절대!!

심각해진 부장 말에 다들 얼어붙는 지민과 팀원들.

오부장 푸하하~ 쫓기는!! (술 들이키며) 제로 데이는 무슨~~
보안 등급 탭티어 지사나 해당되는 거지.
미래정보같이 모의 해킹이나 하는 혈령한 곳은 상관없거든~

사람들 (여전히 긴장감이 흐른다) ..

오부장 걱정말라니까~ 미래정보는 제로 데이 100퍼 안 떠. 절대! 네버!!

웃으며 술잔을 들이키는 오부장과 그제야 지민과 팀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흐른다.

덜컹거리는 전철 소리와 함께 얼굴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지민.

전철 문이 열리자, 폰에서 유심칩을 꺼내 바닥에 버리고 서둘러 내린다.

34. 지민 집 앞 - 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는 지민, 골목으로 들어가려다.. 멍칫!!
너무 조용하다. 시끌뻍적하던 일상의 소리들이 다 사라졌다.

(시간 경과)

- 요란한 소리와 함께 도착하는 오토바이.

배달 헬멧이 치킨 박스를 들고 지민 집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누른다.

별 반응이 없자, 주문표를 확인하더니 다시 문을 ‘쿵!쿵!’ 두드리고.

순간, 문이 열리며 와락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배달, 다시 문 닫힌다.

곧,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긴박한 무전 소리!!

(무전소리)

타켓 땀다!!

순간, ‘위잉!!’소리와 함께 감시용 드론들이 빠른 속도로 주변 하늘을 날아다니고.

어둠 속에서 이어폰 사내들이 라이트를 켜 채 주위를 빠짐없이 체크한다.

35. 지민 집 - 밤

항급히 집 안에서 나오는 이어폰 사내들.

다급하게 무전을 주고 받으며 집 밖으로 흩어진다.

곧, 조심스럽게 집으로 다가가는 누군가, 몸을 잔뜩 움츠린 지민이다.

지민 (나즈막하게) ..도생.. .. 도생아..

까치발을 들어 창 너머 집 안을 살피는 지민, 안으로 들어가려다 멍칫!!

저만치서 꼬리를 세운 채 다가오는 검은 고양이 도생.

지민 (울컥) ..도생아.. 괜찮아??

도생 (멀뚱히 지민을 쳐다본다) ..

지민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하며) 도생 뭐해? 안 오고!! 빨리!!

그때, 무전 소리와 함께 집으로 올라오던 이어폰 사내들, 지민을 발견하고 멈칫한다.
도생을 향해 다급하게 손짓하는 지민.

지민 도생!! 얼른!!

손 흔드는 지민과 다가오는 이어폰 사내들을 이리저리 보던 도생,
더 안전해보이는 벽 너머로 획 사라져버린다.

지민 (허망하다) ..배은망덕한 놈..

실망하는 지민을 향해 달려드는 이어폰 사내들.
순간, 고양이처럼 벽을 타고 다른 옆 건물로 뛰어넘어가는 지민.
그 뒤를 추격하던 이어폰 사내들, 아찔한 높이에 멈칫거리다 우르르 밀려 뒤엎힌다.

36. PC방 - 밤

피씨방 구석진 진 곳에서 우회접속으로 다크웹에 접속하는 지민.
그동안 모의 해킹 자료를 퍼드백했던 미래정보 서버로 들어가다 움찔!!
접속이 안 된다.

지민 ..뭐지.. 이게..??

다른 우회접속으로 미래정보 서버를 찾는 지민,
하지만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에러 메시지만 뜬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생각에 잠기던 지민, 구글 포토에 접속한 뒤, 낱파를 찾아 사진 한 장을 다운 받는다.

장난스럽게 맥주병을 든 술 취한 지민과 미리가 찍힌 사진이 보이고.
그 사진을 확대하자, 지민과 미리 뒤로 흐릿하게 보이는 오피스텔 이름!!

37. 트레비 오피스텔 - 밤

- 사진에 찍혀진 트레비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지민.
- 주위를 살피며 우편함을 뒤지는 지민, 미리 집을 찾아낸다.
- 오피스텔 문틈으로 안을 확인하지만, 불이 꺼져 있다.
- 미리 부계정 인스타를 검색하며 오피스텔을 나오는 지민.
그때 오피스텔로 들어오던 후드와 마주치고, 황급히 도망치는 후드.

38. 근처 도로 - 밤

사력을 다해 도망치는 후드와 그 뒤를 쫓는 지민.

결국 지민에게 따라 잡히고, 벽에 와락 밀어붙여지는 후드, 얼굴이 드러난다.

미리 (당황) ..여긴 어떻게??

지민 무슨 일이야?!

미리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도망쳐야 돼요!!

지민 (벽에 더 밀어붙이며) 뭐야.. 도대체?!!

미리 (겁에 질린 채) ..제로 데이 땀어요...

지민 부장님은?

미리 ..안 돼요. 연락...

지민 (숨호흡하며) ..그럼.. 준..서는??

미리 (고개 저으며) 회사랑 관계된 건 다 사라졌어요. .. 우리도 위험해요.

겁에 질린 미리를 보며 혼란스러운 지민, 눈빛이 표독스러워진다.

지민 (손 내밀며) 내놔! 연락망!!

미리 .. 무..슨??

지민 본사 비상 호출 라인!!

미리 (고개 흔들며) 없어요!!

지민 (밀어붙이며) 이전에 술 마실 때 있다 그랬잖아!! 내 놔 빨리!!

미리 (공포에 질려하다 와락 밀치며) 진짜 없다니까!!

지민, 미리 옷을 뒤져 폰을 꺼내더니 미리 사진을 찍는다. ‘찰칵! 찰칵!’

미리 ..뭐.. 뭐 하는 건데..??

지민 너 인스타 올리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자고.

미리 (지민 손 붙잡으며) .. 아..안 돼요. 하지마요!! 제발..

찍은 사진들을 미리 인스타에 업로드하는 지민

어쩔 수 없다는 듯 미리가 비상 카드를 꺼내고,

지민, 낚아채듯 비상카드를 빼앗는다.

미리 (두려움에 떨며) 회사 구조 조정이 시작됐나 봐요.

지민 ..구조 조정??

미리 두남씨가 그랬거든요. 손대면 안 되는 걸 건들였다고..

지민 ..그래서..?!!

미리 겁에 질린 목소리로 횡설수설하다 갑자기 언니 연락되냐고?

모른다니까 다시 전화한했는데.. 연락 안 돼요. 두남씨도 당했을 거예요..

이제 어떡해요 우리?? .. 진짜.. 구원자가 올까요?

지민 (멈칫) 구..원자??

미리 본사 지원팀요. 제로 데이 뜨면 구원자가 올 거라고.

아무도 믿지 말고 구원자만 믿으라고..

그때, ‘부우웅!!’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 SUV가 돌진해오고,
순간 지면을 와락 밀치는 미리, 길바닥에 지민이 쓰러지고,
공포에 질린 미리, 주춤주춤 물러나는데...
쓰러진 지민을 향해 달려오는 검은 SUV!!
가까스로 몸을 뒹구는 지민, 아슬아슬하게 피한다.
순간 ‘우지직!!’ 파열음과 함께 어둠 너머로 빠르게 사라지는 검은 SUV!!

보면, 목과 허리가 꺾인 미리가 피투성이가 된 채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놀라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지민!!

39. 신호등 건널목 - 새벽

신호를 기다리는 인파 속에서 상일이가 주위를 살피며 신호 바뀌기를 기다린다.
신호가 바뀌자 정차한 차들을 주시하며 허겁지겁 건널목을 건너가고.
‘턱!’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치지만, 황급히 걸어가다 휙 뒤돌아본다.
순간, 경련을 일으키며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지는 상일.
신호를 기다리던 자동차들이 클랙션을 요란하게 울려댄다.

40. 항구 - 새벽

어둠 속 정박한 배들을 주의 깊게 살피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오부장.
폰에 뜬 사진을 확인하더니 메시지 보내면, 곧 오부장 폰으로 답장이 도착한다.

조심스럽게 앞에 있던 고기잡이 배에 올라타는 오부장, 선장실로 들어가고,
.. ‘푸슉!! 푸슉!!’ 소음기 총소리 연이어 들린다.
곧, 항구를 떠나는 고기잡이 배, 어두운 바다 너머로 사라진다.

41. 상가 화장실 - 새벽

‘짜아!!’ 흐르는 물로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내는 지민.
거울에 비친 엉망진창이 된 자신을 멍하게 바라본다.
하루 사이에 ‘미래정보’가 사라졌고, 집이 텅렸으며, 팀원들까지 죽었다.

떨리는 손으로 폰에서 유심칩을 빼 새 유심칩을 끼워 넣는 지민,
비상 연락 카드에 적힌 코드 네임과 보안 문자를 입력한 뒤 메시지를 보낸다.
아무런 답장이 없다.

폰을 뚫어지게 보던 지민, 점점 몸이 심하게 떨려오는데...
그러다 멈칫, 샤넬 미니백을 뒤지더니 뭔가를 찾아낸다.
보면, 두만이가 준 네팔 맛집 리스트다!!

42. 도심 거리 - 새벽

후드를 깊게 둘러쓴 덩치가 CCTV가 있는 곳을 피해 가며 바빠 걷는다.
그때 울리는 폰 메시지. 확인하면, 여행 매니아 사이트다.
게시물에 올라온 답글을 확인하는 후드 쓴 덩치, 재답글을 올리는데,
“교환 가능!! 지금 당장요!!”
후드를 쓴 두려움에 사로잡힌 두만이다.

43. 도심 뒷골목 - 새벽

후드를 깊게 둘러 쓰고 약속 장소로 향하는 두만,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10대 후반의 소녀가 다가온다.

소녀1 (두남을 보며) ..당근?
두남 (미행이 있는지 살피며) .. 네.. 물건은요..? 비행기 표,, 오늘 밤 확실한 거죠?
소녀1 (어물쩍) 아.. 그데요..
두남 ..??!!
소녀1 솔직히 이거 알바거든요. 누가 부탁한다고 해서.. 이상한 거래.. 아니죠?

눈빛이 흔들리던 두남, 소녀1을 와락 밀치더니 달리기 시작한다.

44. 도심 외곽 - 새벽

사람들을 밀치며 정신없이 달리는 두만.
덩치 큰 몸이지만 겁먹은 게 역력한 모습이다.
그 뒤를 쫓는 지민.
달려 나가던 두만, 문 닫은 시장 골목길로 들어간다.

45. 시장 골목길 - 새벽

뒤를 쫓아 들어온 지민, 두남이가 보이지 않자 주위를 두리번 거린다.
순간 강력한 힘에 떠밀려 가게 철문에 쳐박히는 지민.
어둠 속에서 후드 쓴 두남이가 모습을 드러낸다.

두남 (두려운 눈빛) ..어떻게 찾은 거죠?
지민 (얼굴 찡글이며 일어나더니 맛집 리스트 보여주며) 여행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 좀 했지. VPN이랑 TOR로 이중 암호처리까지 해 놓는 작성자가
 흔치 않잖아. .. 본사에 문제 생겼다면? 어떻게 된 거야??
두남 (놀라하다 웃는다) .. 하여튼.. 미리 개는 입이 싸. 다행스럽게도요~~
지민 (흠칫) ... ??!!
두남 (인상 변하며) 안 그래도 어떻게 찾을까 진짜 고민 많았거든요.

지민 (놀란다) ..너..??!
두남 (다가서며) 내 낚요. 전리품!! 이전에 사무실에서 지민씨 컴 열어봤었거든요~
멀티 부팅에 암호까지 설정해서 퐁퐁 숨겨 놓았더만..
지민 (주춤주춤 뒤로 물러난다) !!
두남 (바짝 다가서며) 그거 규칙 위반이잖아. 그러니까 내 낚아구!! 씨발.. 전리품!!

뒤로 물러나던 지민, 벽을 박차고 재빠르게 뛰어 넘어간다.
하지만 지민 다리를 획 잡아 채더니 벽에 내던지는 두남.
‘와장창!!’ 박스 더미에 나뒹구는 지민, 극심한 고통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다.
성큼성큼 다가가 두툼한 두 손으로 지민 목을 확 조르는 두남!!

지민 (두남 손 잡으며) ..뭐.. 하는.. 거야?!!

대답 대신 바둥대는 지민 목을 더 거세게 조이는 두남, 눈이 희번득거린다.

두남 (지민 목을 더 조으며) 그러니까 내놓으라고 전리품!! 씨발!!
지민 (두남 손을 뿌리치려하지만 꿈쩍도 않는다) ..잠..잠깐.. 방법 있을 거야..
썩썩.. ..우리가... 힘을 합치면.....
두남 ..우리..??! (피식 웃더니 지민 목을 더 조으며)
언제나 지멋대로에다 팀 생각은 쥐뿔도 없었으면서..

두남의 손아귀에서 점점 숨이 막혀가는 지민, 옆에 있던 병으로 두남 머리를 내려친다.
‘퍽!!’ 머리에 피가 주르륵 흐르지만 광기에 가득 찬 눈으로 지민 목을 더 조이는 두남.

두남 네 전리품 속에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내놔!!
.. 살 놔둔 살아야지!!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지민, 매달린 샤넬 백 안에서 생존 키트를 열어 뭔가를 꺼내는데...,
광기로 물든 눈빛으로 지민 목을 미친 듯이 조르는 두남.
순간, ‘파지직!!!’ 전기 스파크가 함께 ‘으아악!!!’ 고압 전류에 부들부들 몸을 떨고,
‘파팍!!’ 불꽃을 튀기며 꼬꾸라지는 두남과 지민.
바닥에 쓰러진 채 한동안 꿈쩍도 않는다.

곧, ‘콜록! 콜록!!’ 숨을 들이쉬며 일어서는 지민,
두남이도 영거주춤 일어서려고 하자, 분노의 발길로 미친 듯 갈겨버린다.

지민의 연속된 발길질에 몸이 축 처지는 두남.
그제야 두려움과 공포가 와락 몰려오는 지민, 심하게 몸을 떠는데...,
그때 폰 울리고, 메시지를 보던 지민 눈빛이 움찔거린다.

메시지
모든 접촉 금지.
구원자를 기다려라.
37.5020.977

46. 도심 - 새벽

- 어슴푸레 새벽이 밝아오는 도심 뒷골목.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내는 지민, 주위를 경계하며 폰에 찍힌 좌표를 확인하는데,
메시지가 날아든다. 39.4604.654.

- 외진 도심 주차장으로 달려오는 지민,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또 다시 뜨는 메시지!! 34.5662.972.

지민 (당황) 뭐야..??!!

얼굴이 일그러진 지민, 다시 일어나 달린다.

- 문이 닫힌 도심 공사장.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공사장으로 뛰어 들어오는 지민,
폰을 확인하다 ‘꺅! 꺅!!’ 헛구역질을 연신 해댄다.
고통에 힘들어하는 지민, 그때 어깨를 톡톡 치는 누군가!!
지민은 화들짝 뒤로 물러서다, 놀라 비명을 지르는 입을 가까스로 손으로 막는다.
그런 지민을 보며 환하게 웃는 남자, 미래정보의 막내.. 준서다!!

47. 공사장 뒤편 - 아침

빠르게 공사장을 빠져나가는 지민과 준서.

준서 (지민을 살피며) 괜찮아요? 다친 데는요??
지민 .. 네가 정말..??
준서 (빙긔) 구원자요~ 코드 네임이 좀 구리죠~
지민 ..다른 사람들은..?!
준서 (고개를 젓는다) ..
지민 본사 구조 조정이 시작되었다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준서 (지민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선배.. 혹시.. 벽서라고 들어봤어요?
지민 (흠칫) .. 벽..서라면..??
준서 (고개 끄덕) 기술국 3과에서 극비리에 수집했다던 그 자료요.
지민 이전 정부에서 전량 파기됐고 관련 팀도 전부 해체됐잖아!
준서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누군가는 포기할 수 없었나 봐요.
세상을 자기 맘대로 주무를 수 있는 절대 반지니까요.
지민 ..그게 미래정보랑 왜??
준서 미래정보가 모의 해킹했을 때 벽서파일에 문제가 생겼나봐요?
지민 (얼굴이 굳어지며) 미래정보 서버가 사라졌어. 피드백 자료들도 모두..
준서 선배랑 제가 힘을 합치면 뭐라도 방법이 나오겠죠~
지민 (고개 저으며) .. 우리 둘만으로는..
준서 (애써 웃으며) 일단 차 가지고 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요.
(가다 돌아보며) 선배 못 볼까 봐 얼마나 가슴 졸였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48. 공사장 앞 - 새벽

주위를 살피며 준서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지민.
그때 뒤에서 다가오는 인기척이 들리고, 돌아보다 멈칫한다.
예리한 인상의 강안이 서 있다. .. 어디서 봤더라??

(F.B)

- ‘쿵!!’ 지나가는 사내와 부딪치는 지민.
-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사내!!

지민 .. 당신.. 공항.. 맞지?!!

순간, 빠르게 다가가 지민을 제압하더니 몸 여기저기를 뒤지는 강안.
얼른 몸을 빼는 지민, 하지만 몇 걸음 못 가 붙잡힌다.

지민 ..누구야.. 당신?
강안 (쏘아보며) 날 기다렸을텐데?
지민 (눈 커지며) ..당신이.. 구..원자??설마 회사 사람?!?
강안 회사가 국정원이라면 그러긴 하지.
지민 (분노) 회사가 구조 조정 중이라며? 미래 정보가 희생양이 된 거야??
강안 (무표정하게) 회사가 재수 없긴 해. 그런데 이번엔 번지수가 틀렸어.
지민 대한민국에서 회사 말고 어느 누가 미래정보를 없애. 감히..
강안 (사무적으로) 있어. 씨드9.
지민 ..씨..드9?? 뭔데 그게?!
강안 (지민의 꿰뚫어 보려는 듯 차갑게 쏘아본다)
미래정보를 만들었고, 지금은 폐기하려는 자들이지.
지민 .. 그게 회사가 아니라 씨드9이라고?!! 날 노린 자들은 분명 회사 사람이었어.
강안 (냉소) 씨드9은 어디든 있으니까.
지민 (움찔) 미래 정보를 없애고 나까지 노리는 이유가 뭐야?!
강안 질문이 잘못됐어. 미래정보에서 너만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야지.
지민 (멈칫) ??!
강안 (서늘) 나 아니었으면 넌 이전에 죽었어. .. 살고 싶으면 협조해.

강안을 쏘아보는 지민, 눈빛이 점점 흔들리는데,
그때, ‘부우웅!!’ 소리와 함께 그대로 강안을 밀어버리는 자동차!!
‘쿵!!’ 충격음과 함께 도로 바닥에 나뒹구는 강안, 저만치 멈춘 자동차에서 문이 열린다.

준서 (다급하게 손짓하며) 타요! 선배!! 어서!!!

놀란 지민, 문이 열린 준서 자동차에 올라타는데,
순간, ‘탕!탕!!’ 지민이 타는 자동차 문 쪽에 총탄이 연달아 박힌다.
피 흘린 채 총을 겨누고 다가오는 강안.

바짝 몸을 숙인 지민, 총 겨눈 강안과 차 안에서 손짓하는 준서를 번갈아 보는데,

그때 굉음과 함께 주위로 몰려드는 검은 SUV 차량들!!

준서와 강안을 보며 갈등하던 지민, 순간 한적한 뒷골목을 향해 죽으라 내달린다.

자기 대신 외진 뒷골목을 선택한 지민을 보며 어이없어 헛웃음 짓는 준서.

피 흘리며 다가오는 강안을 보고 웃더니 자동차를 빠르게 출발시킨다.

멀어지는 준서 차를 향해 총탄을 쏟아붓는 강안. ‘탕! 탕!! 탕!!!’

곧, 강안 주위로 빠르게 급정거하는 SUV 차량들!!

49. 공사 빌딩 안 - 오후

- 공사 중인 빌딩 한 곳에서 대형 은박지로 주변을 꼼꼼히 차단하는 지민.
 - 샤넬 미니백에서 ECD(생존) 키트를 꺼내 자그만한 수신기 파워를 켜다.
 - 가지고 있던 옷과 물건들을 수신기로 하나하나 살피고, 일일이 확인하는 지민.
- 그러다 멈칫!! 자세히 보면, 상의 뒤쪽에 붙은 솜털같이 생긴 전자 장비가 보인다.

F.B.

- 차 안에서 지민에게 타라며 손짓하는 준서.
- 피 흘린 채 총을 쏘며 다가오는 강안.

극도로 혼란스러워하는 지민, GPS 장치를 발로 으깨고,

미리에게 받았던 비상 호출 라인을 꺼내더니 서둘러 빌딩을 나간다.

50. 국정원 상황실/도심 빌딩 - 저녁

대한민국 안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들이 JICS(통합정보통신시스템)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는 모니터들로 가득 찬 국정원 상황실.

정,관,재계는 물론 외국의 주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크로스 체크하고 분석해
대한민국 안보를 최전선에서 담당하고 있다.

고급스런 머그잔으로 커피를 즐기는 상황실장 대환과 긴박하게 움직이는 요원들.

그때 보안장치가 된 전화가 요란하게 울린다.

요원1 (전화 받으며) 세기상사입니다.

지민 ..상..황실.. 맞죠?

요원1 (얼른 스위치 전환하고 대환에게 신호하며) 폐기된 비상 라인입니다!!

대환, 빠르게 손짓하자, 걸려 온 전화 위치를 추적하는 프로그램이 대형 모니터에 뜬다.

요원1 어디.. 거셨나요?

지민 ..거기.. 맞잖아요. .. 국정원 상황실..

요원1 여긴.. 세기 상사입...

지민 구원자가 들어 나왔어.
대환 (구원자라는 말에 요원1에게 손가락으로 계속 이어가라고 지시한다) !!
요원1 (대환 지시에 고개 끄덕) .. 구원자가.. 둘이라뇨? 그게 무슨....
지민 (말 끊으며) 구원자!! 회사 긴급구조팀 말이야!!
 (목소리 흔들리며) ..제로 데이가 뒀고 미래정보가 사라졌어.

대환, 요원2를 보자, 상황실 대형 모니터에 '미래정보' 상세 정보가 뜬다.
'적색 라벨'에 '1급 수사 대상' 붉은 마킹!!

대환 (모니터 보며) 미래정보..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위치 추적 앱 개발사.
 (가웃하다 슬쩍) 최근에.. 본사 방문한 적 있지?
지민 본사 모의해킹이 그날 미션이었으니까. 피드백 보고서 올렸잖아요.

대환, 주먹을 꼭 쥐고, 드디어 찾았다!!
지민 위치를 포착했다는 요원1의 수신호와 함께 상황실 모니터에 붉은 점이 표시된다.
대환, 다급히 수신호 하자, 지도에 있던 파란 점들이 일제히 지민을 향한다.

-한쪽 모니터에 사복 차림의 국정원 추적팀 자동차들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대환 (목소리는 여유 있지만 여기저기 지시하느라 바쁘다) 요즘 회사가 어수선훘.
지민 구조 조정 때문인가요?
대환 (추적팀 위치를 확인하며) 윗대가리들 삽질이 어제 오늘이야?
 밑에서 죽으라 일하는 놈들만 팽당하는 거지.
지민 (목소리 떨리며) ..우린.. 본사 지시대로 따랐을 뿐이에요..
대환 (수신호로 재촉하지만 목소리는 느긋) 그 맘 잘 알지. 나 역시 비정규직으로 시
 작했거든. 문제 생기면 맨 먼저 우리부터 쳐내잖아. 더러운 세상이야.
지민 (흔들린다) ..
대환 이번 일 잘 마무리만 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내가 책임져.
 ..피드백 보고서 있지? 지금 다시 보내. 늦어지면 진짜 장담 못 해!!
지민 .. 아뇨. 설명부터 들어야겠어요. 미래정보가 왜 버려졌는지??

짜증이 확 몰려오는 대환. 요원1을 보자, 대환에게 세 손가락으로 3분을 가리킨다.
지민의 붉은 점 주위로 빠르게 몰려드는 파란 점들!!

대환 (거의 잡았다) 그래.. 설명해줄게. 얼굴 보고 얘기하자. 어디야. 지금?
지민 (망설이다 피식) .. 알잖아. 나 있는 곳.
대환 ..무슨.. 소리야..??
지민 (피식) 지금 열나게 추적하고 있을텐데~
대환 (뜨끔) 뭐래?! 누가 추적..
지민 장대환. 국정원 상황실장. 45세. .. 맞지??

통화하는 지민, 옆에 있는 노트북에는 국정원 상황실 cctv 화면이 보이고,
얼굴을 찌푸리며 통화하는 대환 얼굴 사진으로 국정원 직원 파일을 검색한다.

대환 (요원들에게 시스템 점검하라며 미친 듯 손짓하며) 일단.. 만나서 얘기해.

지민 미래정보도 이런 식으로 처리한 거야?
 (대환 파일 확인하며) 비정규직도 개구라네. 킹받네.
 대환 (얼굴 일그러지더니 모니터로 추적팀을 체크한다) .. 긴 말 안 해.
 살고 싶으면 협조해. 넌 못 빠져나가. 절대!!
 지민 잘 나신 정규직께서 해보시지. 날 잡을 수 있나?

전화를 끊는 지민, 폰에서 유심칩을 꺼내 건물 밖으로 던진다.
 ‘푸드득!!’ 빌딩 근처에서 비둘기들이 빠르게 날아오른다.

51. 국정원 상황실 - 저녁

상황실 대형 모니터에 지도 위 깜빡이던 붉은색 불빛이 사라진다.

요원1 (당황) .. 끊겼습니다.
 대환 (얼굴 찡글이며) 추적팀은?!
 요원2 지금 현장 도착!!
 대환 주변 cctv 모두 스캔해!!
 미래정보와 관련된 건 뭐든 굶어오고.. 세상 전부를 뒤져서라도!!

52. 빌딩/옆 빌딩 - 밤

빌딩 밑으로 속속 도착하는 검은 SUV들!!
 밑에서 사람들 올라오는 소리 들리자,
 지민, 건너편 빌딩 쪽으로 달려가더니 파쿠르로 몸을 날린다.

그때 ‘푸드득!!’ 날아오르던 비둘기와 부딪치고,
 ‘주르륵!!’ 밑으로 미끄러지다 난간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리는 지민.
 동시에 사복 차림의 국정원 추적팀이 라이트 달린 총으로 빌딩 주위를 훑는다.

‘휘잉!!’ 세차게 부는 바람에 빌딩 벽에 매달린 채 몸이 휘청거리는 지민.
 옆 빌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자, 일제히 라이트를 비추고 다가가는 추적팀!!
 ‘퍼드득!!’ 비둘기떼들이 일제히 빌딩 위로 솟구친다.

추적팀 불빛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옆 건물로 몸을 숨기는 지민.
 추적팀, 불빛에 아무 것도 보이지 않자 다른 곳으로 향한다.

연신 숨을 몰아쉬며 바짝 엎드린 지민, 건너편 빌딩 아래로 빠르게 사라진다.

53. 도심 한적한 거리 - 밤

사람들 사이로 태연하게 걸어가는 지민, 폰을 확인한다.
 지난번에 만났던 동기들 단톡이 빠르게 올라온다.

“지민 소식 들었어? ”
 “학교 다닐 때도 해킹으로 제대로 사고 쳤잖아. 지난번에 뭔가 썰했어.”
 “지민이 연락되면 형사가 전화하라고 하던데.., 어떡해??”
 “아.. 몰라 몰라.. 혹시 여기 지민이 가입 했냐??”
 “헐!!!”

순간, 빛의 속도로 단톡에서 나가버리는 동기들, 지민과 용훈 둘 남았다.
 황급히 폰으로 기사를 검색하는 지민, 발걸음을 멈춘다.

- 해킹 범죄 조직, 국내 앱 개발사로 위장회사 차려 정부와 기업 주요 자료 유출
- 국방 연구소, 인터넷 데이터 센터, 경찰 수사 전까지 해킹당한 사실 몰라.
- 자살한 유력 대선 후보, 불법 해킹으로 지속적으로 협박당한 증거 포착.
- 불법 해킹 범죄 조직이 입힌 손실 규모 건국 이래 최대 규모, 피해 대책 시급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을 지켜오던 미래정보가 하루아침에 해킹 범죄 조직으로 전락했다.
 분하고 억울한 맘에 입술을 깨무는 지민.
 그러다 폰으로 급히 계좌를 확인하는데, 놀란 입을 다물 수가 없다!!

(소리) .. 다..시.. 다시.. 확인해봐요??!!

54. 외진 뒷골목 - 밤

폰으로 전화하는 지민, 몸이 심하게 떨려온다.

안내 (사무적 친절) 현재 고객님의 계좌에 잔액이 없습니다~
 지민 아침에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단니까!!
 안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계좌 잔액 뿐이구요.
 자세한 건 내일 영업시간에 가까운 지점에 가셔야 합니다.
 혹시, 이상한 전화나 메시지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전화를 끊는 지민, 폰으로 다시 잔액을 확인하지만, 계좌 2개 잔고가.. 분명 0원이다!!
 ‘아악!!!!’ 미친 사람처럼 주위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부수는 지민,
 몸을 심하게 들썩거리다 멈칫!! 어디론가 급하게 향한다.

55. 요양원 병실 - 밤

어두운 병실 침대에서 잠을 자고있는 상호.
 누군가 상호를 흔들자, 눈을 뜨고 놀란 상호 입을 막는 손!!

56. 요양원 앞 - 밤

휠체어에 태워진 채 황급히 요양원을 빠져나오는 상호와 지민.

상호는 오랜만의 나들이라 신나 있다.

그때 요양원 앞에 검은 SUV가 멈추자, 얼른 몸을 숨기는 지민과 상호.
차 안에서 강안이 나오더니 요양원 안으로 뛰어 들어간다.
서둘러 상호를 데리고 사라지는 지민.

57. 정신병원 복도 - 새벽

복도에서 서류를 체크하는 지민과 간호사.

간호사 (서류 확인하며) 환자 이름이.. 정종수님 맞죠?
지민 (멍해 있다) ..
간호사 (힐끗) .. 정종수.. 아닌가요?
지민 (그제야 움찔) 맞아요. 정종수..
간호사 (의심의 눈길) 위탁보호라 일주일 이상은 안 되는 것 아시죠?
지민 저도 복지관에서 갑자기 인계받은 거라..
간호사 (말 끊으며) 그 시간 지날 때까지 보호자 안 오면, 그 즉시 퇴실 조치 됩니다.
힘드니까.. 버리는 사람 많거든요.

체크하는 간호사에게 어색하게 웃더니 병실로 들어가는 지민.

58. 정신병원 병실 - 새벽

그새 전기 플러그를 분해한 상호가 스파크를 일으키며 장난치려 한다.

지민 (전기 플러그 뺏으며) 또 사고 치면 쫓겨나. 안 돼 진짜!!
그리고 오빠 이름.. 이상호 아냐. 정종수야!!
상호 (눈이 깜빡깜빡) ..정..종..수..??
지민 (독기) 그래 정종수!!
상호 (눈이 가물가물) 아닌데.. 나.. 이상호인데..
지민 (단호) 아냐!! 정종수 맞아!! 약 먹었으니까 잠 올 거야.
말 잘 듣고.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나. 약속.. 할 수 있지??
상호 (눈을 깜빡거리다 새끼손가락을 든다.) .. 너도 약속..
지민 .. 또 뭘?!!
상호 (눈이 가물거리지만 힘겹게 손가락 들며) ..훈..련..
지민 (움찔) .??
상호 ..널.. 지켜줘야 하는데.. 널... 너를..

상호는 약효가 도는지 고개를 떨어트린다.
잠이 드는 상호를 외면하듯 매몰차게 병실을 나가는 지민.
하지만 다시 돌아와, 침대 밖으로 빠져나온 상호 손을 이불 안으로 넣어준다.

지민 우리가 또 포기를 모르잖아~

(눈물 핑 돌며) 모든 게 좋아질 거야. 쯤만 버텨 줘. 빨리 올게~

잠이 든 상호 손을 이불 안에 넣어주고 일어서는 지민.
이를 악다문 지민 얼굴에 이전과 다른 독기가 서려 있다.

59. 클럽/승재작업실 - 새벽

번쩍이는 조명 아래 강렬한 비트와 반복되는 엠비언트 사운드에 몸을 맡긴 남녀들.
한껏 멋을 낸 코난(15), 화려하게 치장한 사람들 사이에서 익살스럽게 춤을 추고 있다.
사람들을 헤치며 다가오는 우라부락 덩치남.

덩치남 단가가 너무 켜.

코난 DM 못 봤어? 네고는 사절이라니까.

덩치남 (쏘아보며) .. 진짜.. 안 걸리는 거지?

코난 (손가락을 스와핑하자 스펀 매일 동영상에 공중에 펼쳐진다)

스펀 매일계의 에르메스라니까. 한 번 설정하면 암호 해제할 때까지
매일 자동으로 발송돼. 랜덤 우회접속으로 차단이나 거부도 안 먹히고.
짜구려 찾을 거면 딴 데 알아보든가.

덩치남 (어깨 으쓱) .. 좌표 보내. 1비트코인 맞지?

반복되는 리듬에 몸을 흔드는 코난, 손가락으로 스와핑 하자,
'7YoURbEATcoiN99MYWaLLetiDaDdRess92' 비트코인 주소가 덩치남한테 전달된다.

코난 입금 순간 액티베이션 키 갈 거야~ .. 오늘 비트코인은 얼마가 되려나?

순간 시야가 붉게 깜빡이더니 알람 신호가 뜬다.
화들짝 놀라는 코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손가락 튕기면,

- 동시에 코난 뒤의 화려한 클럽이 각종 전자 장비로 가득 찬 작업실로 바뀐다.

60. 승재 작업실 출구 - 새벽

VR 글래스를 후다닥 벗는 늘어진 아디다스 차림의 승재, 얼른 CCTV 모니터를 확인한다.
요란한 알람 소리와 함께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누군가!!
재빨리 외장 SSD를 빼낸 뒤 작업실 뒷문을 열고 나가는 승재.

순간, '빠썹!!!!' 철제문 잡은 손에 시퍼런 스파크가 튀더니 뒤로 나자빠지고.
문이 열리며 들어오는 전기 충격기를 든 누군가!!

(소리) 어떻게 변한 게 없냐~

61. 승재 작업실 - 새벽

승재 컴퓨터에 꽂힌 지민의 붉은 USB가 반짝이고 있다.
모니터로 파일을 확인하고 있는 지민과 아이스박스로 머리를 식히고 있는 승재.

승재 안나푸루나 간다던 인간이 웬일? 개구라였지??
지민 (모니터에 뜬 파일을 확인하며 바쁘다) ..
승재 얼척이 없네.. 여긴 내 작업실이야!!
지민 (문제가 생겼는지 키보드를 광광 내려친다) 개 빠치게!!!!
승재 (흠칫) 이..거.. 불법침입이다. 명백히..
지민 (다시 모니터 확인하며) 불러. 경찰. .. 아차차.. 안 되겠다..
 넌 공식적으로 없는 인간이잖아. 경찰 당황하겠다. 그지??~
승재 (버럭) 누구 때문에 이 개고생하는데!!!
지민 누가 미 첩보위성 위치 노출시키래?? 접속 권한까지 죄다 오픈시키구.
 NASA가 동네 놀이터냐??
승재 (쏘아보며) 비겁하게 쏜지른 주제에!!
지민 (버럭) 들키지나 말던가!! 개고생은 누가 했는데?!!
승재 .. 하... 뻔뻔한 개 또라이 같은 게 진짜..
지민 (붉은 USB를 꺼내며) 얼굴 보는 거.. 피차 기분 더럽잖아.
 디버깅 끝내면 바로 꺼져 줄게. 약속해.
승재 약속?!! .. 음모! 날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국정원 사냥개 말을
 믿으라고? 더구나 이지민 널?!! 차라리 째새 말을 믿겠다.
지민 (붉은 USB 보여주며) 해결하고 나갈까? 날 썰래?

뻔뻔하게 압박하는 지민을 죽일 듯 쏘아보는 승재.

62. 국정원 회의실 - 오전

3차장 (기기 찬다) 하.. 또 놓쳤다고?!
대환 (조인트 까일까 뒤로 슬쩍) 하지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3차장 (황당) 이 미친개미 자숙이!! 회사가 털리더니 정신도 같이 나갔잖나?
진옥 빠져나간 건 벽서 파일뿐입니다. 암호키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3차장 벽서 암호키?!! (대환을 보며 슬쩍) 그래.. 부친께서 뭐라카던데?
 조부님께서 벽서 파일 원년 멤버시잖아.
대환 (얼굴 찡글이며) 가족끼리 연락 끊은 지 오래됐구요.
 정 궁금하시면 직접 물어보시든가요.

대환의 건방진 태도가 맘에 안 드는 3차장, 하지만 3대가 금수저 국정원 집안이다.

진옥 .. 벽서파일만 조용히 회수되면..
3차장 (그제야 미소) 변하는 건.. 없다? 확실하제??
진옥 (고개 끄덕이며) 대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힐긋 보는 3차장에게 서류를 건네주는 진옥.

3차장 (서류를 확인하며) 미래..정보?! 어디 지사야??
 (확인하다 움찔) 이거... 진짜가? 크로스체킹 했나??
 대환 벽서 파일은 내부 도움 없이는 절대 못 빠져 나간다니까요.
 3차장 (서류를 찬찬히 확인하며) 음...
 대환/진옥 (3차장 결정을 기다린다) ..
 3차장 (서류 내려 놓으며) 좋아. 이대로 진행해. 대신.. 잡음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일어나 나가며) 여기저기 쥐새끼 천지야. 대한민국 진짜 큰일이다. 큰일..

63. 국정원 비상계단 - 오전

사람이 없는 비상계단에서 목소리 낮춰 통화를 하고있는 대환.

대환 그러니까.. 암호키 없이는 벽서는 그냥 쓰레기라니까!! 대신 암호키만 찾으면 게임 셋이야.
 ..아.. 몰라.몰라.. 미래정보가 손에 들어오면 바로 콜할 테니까. 일단 대기해요.
 명심해요. 우리 미래가 달린 일이니까!!

전화를 끊는 대환, 어둠 속에서 탐욕의 눈빛이 번득인다.

64. 강안 자동차 - 오후

폰으로 지민의 정보 파일을 살펴보는 강안.

이지민. 32세.

- 해킹 동아리 대결로 경쟁학교 서버를 디도스 공격으로 다운시켜 정학.
- 소방 구조 활동 중에 다친 오빠 보상금 불만으로 공무원연금 공단 해킹 시도.
- 국정원 응시, 최종 면접에서 탈락.
- 7년간 국가 주요 기관을 불법으로 해킹해 자료 유출.
- 최근 국정원 서버를 침투해 존안 금고 접속 시도.

자료를 넘겨보던 강안, 손이 멈춰진다.

지금의 상호가 아닌 이전의 다부진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이상호 41세.

- 이지민 오빠로 현재 유일한 혈육
- 707 특임대 출신으로 국외까지 알려졌던 생존술 전문가, 국정원 추적팀 교관 역임.
- 소방관 재직 시 무너진 빌딩 속 생존자를 구하려다 사고로 퇴직.
- 이지민의 공단 해킹 시도로 국가 유공자 자격 박탈.
- 요양원 이탈 후 현재 소재 파악 중.

지민과 상호 파일을 확인하는 강안, 전화를 건다.

강안 .. 지금 이지민 위치는?

남자 (소리) 접속 끊긴 곳이 테헤란로 쪽인데, 추적팀이 뒤쫓고 있습니다.

강안 기존 방식으로 못 잡아. 회사 추적팀을 가르친 게 이상호 교관이니까.
 남자 (소리) 이번 낀은.., 위쪽에 보고하시고 제대로 절차 밟으시는 게..
 강안 .. 감찰국 다녀갔구나..
 남자 (소리) ..죄..송합니다..
 강안 내 접촉 기록 모두 지우고, 이 시간 이후로 손 떼. 그동안 수고 많았다.
 남자 팀장님!! 팀원들 희생은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툭!!’ 전화를 끊는 강안, 폰에서 유심칩을 빼낸 뒤 창밖으로 던진다.
 전국 CCTV 데이터베이스망에 접속해 지민 사진을 업로드한다.
 곧, 지민을 맹렬하게 검색하는 CCTV 데이터베이스망!!

65. 승재 작업실 - 저녁

여러 모니터에서 수많은 파일들이 스캔되고 있고,
 컴퓨터에 꽂힌 지민의 붉은 USB가 빠르게 깜빡거린다.

‘툭!툭!!’ 바닥에 흘러내리는 땀방울.
 트레이닝 훈련 앱을 켜고 물구나무 선 채 팔굽혀 펴기를 하고 있는 지민.

승재 (디코딩하며) 이 상황에서도 그러는 거.. 병이다.
 지민 (대꾸없이 물구나무 팔굽혀 펴기를 계속한다)
 승재 (모니터 보며) 어디보자.. 뭐가 있으려나..
 어쭙.. 분당 IDC(인터넷데이터센터)? 시작부터 켜데~ .. 국방 연구소??
 헐~ 원자력 발전소까지?! 뭐냐? 이 불길한 것들은??
 지민 (물구나무 서기하다 일어나며) 빨리 일 끝내자.
 승재 (벌떡 일어나며) 이건 범죄야. 그것도 무지 심각한!!

지민, 컴퓨터 쪽으로 가더니 붉은 USB에서 파일 하나를 연다.
 하지만 이내 다시 잠기는 파일!! 다시 열어보지만 락이 빠르게 다시 잠긴다.
 입가가 실룩이는 승재.

지민 탐 티어급 락에다, 3중 암호화 장치, 거기다 안티 디버깅까지..
 보통 이 정도면 1기가 넘잖아. 근데 애는 1메가도 안 돼.
 승재 (힐긋 보며) 에어 링크로 디버깅 해봤어?
 지민 (고개 저으며) 안 통해. 분명 구멍이 있을 텐데.., 불가능..할까?
 승재 (지민을 밀치고) 비켜 봐. 이 몸이 누구시냐? NASA도 뚫은 몸인데.

자신의 해킹 툴로 파일에 잠겨진 락을 풀자, 이내 다른 락이 승재의 해킹 툴을 튕겨버린다.
 승부욕이 달아오르는 승재, 다시 락을 풀면, 빠르게 승재의 디버깅을 무력화시킨다.

승재 하.. 무한 루핑까지?! 뭐냐 애는?? 검찰 포렌식과라도 털은 거냐?? ㅋㅋ
 (멈칫) 설마.. 회사??..
 지민 (궁정도 부정도 않는다) ..
 승재 진짜 회사 꺾 빼내 온 거야? 미쳤구나!!

그때, 요란하게 울리는 비상벨!! 출입구 cctv에 누군가가 작업실로 들어오고 있다.
항급히 무기 될 만한 도구를 챙기는 승재, 반면 지민은 담담히 지켜본다.
곧, 문이 열리고 모습을 드러내는 검은 실루엣, 지민을 보며 환하게 웃는.. 준서다!!

66. 승재 작업실 - 밤

얼굴이 굳은 지민과 준서 앞을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는 승재.
모니터에 락이 걸린 파일을 쏘아보며,

승재 그러니까 모든 게 껌쩍한 이 파일과 연관된 거라는 거지? .. 뭘데 이게?!
지민 알면 너만 피곤해져.
승재 오픈 안 하시겠다? 하긴.. 언제 사람 믿은 적 있냐? 난 손 떼.
지민 그래. 관두자. 관둬!!

컴퓨터로 다가가 붉은 USB를 빼는 지민.

준서 .. 파일명 벽서(僻書)!!
지민 (준서를 쏘아보며) 그만해!!
준서 이러려면 처음부터 여길 찾아오질 말았어야죠.
승재 (지민과 준서를 흥미롭게 번갈아보며) 계속해 봐.
준서 불법 사찰한 도청, 감청 기록물로 처음 만든 곳은 중정 정보수집팀이죠.
승재 .. 중..정? 이라면.. 설마 중앙정보부?? 40년 넘은 파일이야?!!
지민 (한 숨 쉬며) 이후에 안기부 여론조사팀에서 업그레이드 됐고,
 국정원에서 운영하다 최종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전량 폐기된 걸로 알려졌어.
승재 난 왜 몰랐지?
준서 본사 내에서도 아는 사람은 극소수구요.
 존재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감찰팀이 찾아가죠.
승재 (입을 삐죽) 저 껌쩍한 것 안에 뭐가 들었는데??
준서 (어깨 으쓱) 모르죠. 아무도.
승재 .. 몰라?!!
지민 정식으로 오픈된 적 없으니까.
승재 .. 존재하되, 드러내지 않는다.. 어머어마한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네.
준서 이전에 사고로 나온 적 있는데 그때마다 세상이 뒤바뀌었죠
지민 쿠데타가 일어나 대통령이 되었고, 내부 세력 도움으로 국가가 부도났으며,
 대통령까지 감옥 보냈으니까. 백범 암살범 자백도 있다는 소문도 있어.
승재 그게 다 벽서파일..?? ..세상에나..
준서 물론 회사는 부인하겠지만요.
지민 대략 40만명 이상의 존안 자료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왔고
 정치인은 물론 재계, 관계, 학계, 성직자, 시민운동가, 셀럽들은 특별관리돼.
 그러니 누구는 목숨을 걸고 없애려 하고, 누구는 손에 넣으려고 하겠지.
승재 (얼굴이 굳어지며) 그러니까.. 벽서 파일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 맘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얘기네.
 (얼굴이 더 굳어지며..) .. 씨발.. 대박!!! 그럼 무조건 열어봐야지!!

안 그래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거든~~

승재의 반색에 의외라는 듯 반색하는 준서와 미소짓는 지민.

준서 문제는.. 암호키 없이는 현존 최고 슈퍼컴으로도 수 만 년 걸린다는 거죠.
승재 .. 암호키? 그건 어딘데?!
준서 소문엔, 벽서 파일 근처에 숨겨 놓았다고 전해줬죠.
승재 치명적인 독사 근처에 늘 해독초가 있다는 애긴데.. .. 그럼 껌이네~
 벽서 파일 있던 곳에 가면 되잖아. 어딘데.. 거기가? 어디..??

67. 작업실 위 옥상 - 새벽

세차게 부는 바람에 지민의 머리카락이 어지럽게 휘날린다.
다가서는 준서, 말없이 화려한 도심의 야경을 바라본다.

지민 ..왜 미래 정보지?! 보안 등급 낮은 지사잖아.
준서 그러니까 정리 대상 일순위가 됐겠죠.
지민 (준서를 보며) 넌? .. 본사 사람이잖아.
준서 (멋지게 웃는다) ..
지민 지금도 안 늦었어. 복귀해.
준서 (미소)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갔겠쥬~ 그러니까 다른 구원자를 보냈죠.
지민 (얼굴이 어두워진다) .. 아는 사람이었어?
준서 (한숨) .. 리스트 관리팀요.
지민 (놀란다) !!
준서 일단 명령이 떨어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해결사들이죠.
 미래정보도 그들 짓일 겁니다. .. 선배에게 무슨 말 하던가요?
지민 (얼굴이 굳어지며) ..날... 범의자 취급했어.
준서 (걱정하는 지민을 보고 웃으며) 넘 걱정마요.
 벽서 파일만 손에 넣으면 회사도 우릴 쉽게 어찌지 못할 테니까.
지민 .. 우리가 똥을 수 있을까? 존안 금고..
준서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요. (빙그레 웃으며) 무조건 해내야쥬~~

흔들리는 지민에게 다가가 꼭 안아 주는 준서.
하지만 이전과 달리 준서에게 안긴 지민의 눈빛이 두려움으로 요동친다.

68. 검찰청 앞/국정원 회의실 - 오전

-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지고,
'차기 대선 후보자' 아들이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입을 꼭 다문 채 서둘러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후보 아들.

뉴스 자막에는 '해외 투자금 유치와 마약 구입'이 선명하다.
그 뉴스를 폰으로 확인하는 3차장, 신경질적으로 꺼버린다.

3차장 쫓.. 이쪽도 날 쫓구만.. (멈칫) 벽서는 아이제??
 진옥 소스가 검찰 쪽이랍니다.
 3차장 새끼들.. 지들 세상이라고 맘대로야. 잘 놀아 봐라. 아작 날 때가 있을끼다.
 (차 마시며) 그래.. 미래정보는?!

대환 곧.. 정리됩니다.
 3차장 (찾잔 내려 놓으며) 곧이라.. 언제부터 회사에서 ‘곧’이라는 말을 썼노?
 대환 (얼굴 일그러진다) ..
 3차장 (일어나며) 쫘쫘.. 여태껏 여자 하나 해결 못하고.. 회사 꼬라지 잘 돌아간다.

그때 폰 울리자 확인하다 굶신거리며 회의실을 열린 나가는 3차장.

대환 (굶신거리는 3차장을 따라 하며) 회사 꼬라지 잘 돌아간다..
 이곳저곳에다 회사 파일로 영업하신 분이 누구신데?
 회사가 동네 찌라시 만드는 곳도 아니고.. 쏘심이 있어야지.

진옥 그거 지킨 사람.. 옷 다 벗더라.

대환 (옆에 바짝 붙으며) 그래서 넌 누가 1호가 될 것 같냐?
 대선 끝나면 칼바람 불 거잖아.

진옥 .. 난 사람이나 라인에 충성 안 해.

대환 (얼굴 찡글이며) 짹 막힌 건 예나 지금이나.. 동기 하나 있는 게 진짜
 도움 안 돼. (씨익) 그래도.. 네가 회사 짹 먹으면 좋겠다~

진옥 (물끄러미 쳐다본다) ..

대환 대한민국 최초 여자 국정원짱!! 씨발.. 꼬장.. 고진옥이라면 인정하지~
 우리도 제때 퇴근 좀 하고.. 워라벨 좀 하고 살자~ 동기야~~

69. 강안 자동차 - 오전

도심을 질주하는 강안 자동차.
 ‘삐익!!’ 지민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던 모니터에서 알람이 뜨고.
 강안, 빠르게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한다.
 자동차 모니터에 지민 얼굴이 잡혔다.

70. 국정원 로비/승재 자동차 - 오전

안경을 쓴 정장 차림의 지민과 준서가 경비가 삼엄한 출입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다.
 예리한 눈빛으로 모니터에 뜬 지민과 준서를 확인하는 경비들.
 국정원 시스템 관리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지민과 준서가 검색대를 통과하자 이어폰으로 승재 목소리가 들려온다.

승재 도대체 백도어를 얼마나 깔아둔 거야? 국정원을 제집처럼 드나들어~
 지민 수다 떨 시간 없어. 곧 눈치챌 거야. .. 존안 금고는?
 준서 지금 국정원 설계도 확인 중인데.. .. 없어.
 지민 없다니??

승재 존안금고가 본사에 있는 게 확실해?
 준서 당연히 설계도에는 안 보이죠. 존안금고는 회사 내에서도 금기어니까.
 지민 ..예상 지점 보내.
 승재 일단, 확인해야 될 곳이 3군데.
 서버실 점검 스케줄이라고 조정해 놓았어. 루트.. 보낼게.

곧, 지민 시야로 지시 아이콘과 거리가 뜬다.
 지민과 준서, cctv가 없는 비상계단으로 올라가고,

그때, 다급하게 국정원으로 들어오는 강안!!

71. 국정원 복도 /승재 자동차 - 오전

길고 좁은 복도를 걸어가는 지민과 준서.

승재 설계도 다 훑었는데.. 서버실 말고는 데이터 보관소가 없어.
 그놈의 존안금고가 있긴 한 거야?
 지민 (잠시 생각) 전력 차트 확인해 봐. 사용량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야?
 승재 당연히 서버실이겠.. 어랏!! 더 많은 데가 있네.
 지민/준서 !!
 승재 그냥 비품 창고인데..
 준서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지 확인해봐요.
 승재 ..인트라넷이라고 했지? 기다려 봐.

승재 대답을 초조하게 기다리며 복도를 걸어가는 지민과 준서.

승재 네트워크 라인은 있는데 연결 안 되어있어. .. 타임 리밋 인트라넷인가?.
 지민 (반색) 거기야. 존안 금고!!
 승재 그래도 접속하면 사냥개들이 들이닥칠 텐데..., 괜찮겠어?
 지민 시간 안에 나오면 돼.
 승재 (설계도를 확인하다 멈칫) ..자..잠..깐!!
 존안 금고 출입하려면 1급 보안 등급자 승인이 필요해.
 지민 (입술을 깨문다) .. 지금 가능해?
 승재 2중 보안 승인이라 시간이 걸려. 너무 촉박해!!
 준서 그건 제가 말죠. 선배가 그랬잖아요. 해킹 중에 최고 기술은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을 뚫는 거라면서요.
 아는 라인을 동원해보죠. 대신 CCTV나 따돌려줘요.
 승재 우이씨... 막상 하려니까 쯤 쫓리네.. 괜한 짓 하는 건지 모르겠다.
 걸리면 난 바로 빠진다.
 지민 존안 금고.. 최단 코스를 보내.

앞에 있던 CCTV 전원이 차례대로 꺼지고,
 곧, 지민 시야로 존안금고로 가는 루트가 인디게이트로 깜빡거린다.
 폰으로 “??” 메시지를 보내는 준서.

72. 국정원 사무실 - 오전

책상 위 폰에 ‘??’ 메시지가 뜬다.

메시지를 확인한 뒤 마우스로 승인 버튼을 누르는 누군가의 뒷모습.

곧, X47 구역에 인트라넷 승인이 떨어진다.

‘!!’ 답장 메시지를 보내는 누군가의 폰!!

73. 존안금고 - 오전

어두운 붉은 조명 아래 깊은 정적에 휩싸인 존안금고.

‘우웅!!’ 소리와 함께 불이 켜지고 스르르 존안금고 문이 열린다.

하얀 서버로 가득 찬 국정원 존안금고로 들어오는 지민과 준서.

준서 (긴장) 대한민국의 숨겨진 역사 속으로 들어왔네요. 좀 흥분되는데요~
지민 (컨트롤 박스로 다가가며) 시간은?
준서 (시계에 타임 리미트를 맞추며) 5분!!
지민 (AR글래스 너머로 주변 설계를 띄우더니 한 곳을 짚으며)
넌 여기에 DMZ를 만들어.
준서 설마.. 혼자 하시게요?!
지민 능력자를 썬치는 건 재능 낭비야. 가능하지?
준서 (빙긔) 선배 말이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갑니다~

빙긔 웃으며 존안금고를 나가는 준서.

지민, 서버 컨트롤 박스에 노트북을 연결하자,

‘우웅!!’ 묵직한 기계음과 함께 일제히 돌아가는 존안 금고 서버들!!

74. 국정원 상황실 - 오전

피곤에 찌든 대환, 아이스 커피를 훌쩍거리며 상황실로 들어온다.

그때 울리는 비상벨 소리, 해킹 시도다!!

대환 (짜증) 또 어딘데??
요원1 국방 연구소 쪽입니다!!
대환 새끼들.. 진짜 신경 안 써. 그렇게 피드백 해줬구만. 이참에 아주 녹여버려라.

그때 다른 모니터에도 해킹 신호가 뜨고,

연달아 다른 모니터들에서도 해킹 신호들이 잡힌다.

동시다발 해킹에 긴박해지는 상황실.

요원2 금융 DR 센터!!
요원3 분당 IDC!!

요원4 ..VIP... 집무실..입니다..
 대환 출처가 어디야? 중국? 러시아? .. 또 북한 개들이야??
 요원1 .. 그게.. 서인도 제도 쪽인데....
 대환 (눈빛이 번득) ..해킹 패턴은?!
 요원2 WebDAV 취약점과 내부 서버에서 Webshell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대환 이전에 회사 서버 털었던 놈과 비교해 봐!!

대환의 지시에 상황실 대형 모니터에 2개의 해킹 패턴 그래프가 비교된다.

요원1 (흠칫) 싱크율 97% 이상입니다.
 대환 (피식) 서인도 제도?? 좇까라고 해. (안경테 만지작거리며) 상황실!!
 요원들 (일제히 대환의 지시를 기다린다) !!
 대환 해킹 최종 목표는.. 회사다. 추적팀 대기시키고, 회사 서버 모조리 스캔해!!
 (아이스 커피를 입에 다 털어 넣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깜찍한 새끼들아~~

75. 존안금고/비품 창고/승재자동차 - 오전

존안금고 서버에 있던 파일들이 지민의 AR 글래스 너머로 펼쳐져 있다.

지민 (손가락으로 파일들을 빠르게 분류하며) DMZ 설치는?
 준서 (키보드 두드리며) 패러럴 설치만 남았어요. 근데 너무 많아요. 파일이.
 지민 싱크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오픈되지 않은 파일만 추려.
 준서 (키보드 두드리며) 역시 선배!! 예상 후보가 엄청 줄겠는데요..
 .. 패러럴 완료!! 전송합니다~~

지민의 AR 글래스로 준서가 보낸 패러럴 접속 코드가 뜨자, 승인 버튼을 누르는 지민.
 동시에 준서도 존안금고 서버에 접속한다.

승재 (추적 프로그램 따돌리며) 애들 완전 킹 받았어. 국정원 전체가 쫓아와!!
 지민 성공하면 넌 레전드 되는 거야. 한,미 최고등급을 뚫은 구루급으로.
 승재 (키보드 빨라지며) 그것도 안 잡힐 때나 가능한 거지..

지민의 AR글래스 너머로 빠르게 정리되는 존안금고 파일들.
 하지만 이내 재배치 된다. 눈빛이 꿈틀대는 지민, 다시 파일들을 정리하고.

준서 (당황) 회사 시스템이 그때랑 달라졌어요. 어떡하죠 선배??

AR 글래스 너머로 재배치되는 파일들을 굳은 얼굴로 바라보던 지민,
 결심한 듯 미래정보의 전리품이 담긴 붉은 USB를 꺼낸다.

76. 국정원 상황실 - 오전

동시다발적인 해킹을 추적하느라 긴박해진 요원들과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는 대환.

그때 3차장과 감찰국장 진옥이 상황실로 들어온다.

3차장 또 그놈들 맞제?!

대환 (미소) 이번엔 그냥 못 빠져나가요. 시스템에 무한루핑을 심어 뒀으니까~

상황실 모니터에 해킹 접속 장소가 점점 좁혀지고, 이제 거의 따라잡았다.

그런데 해킹 장소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점프한다.

추적하던 요원들, 일제히 대환의 지시를 기다리고.

상황 모니터를 보며 얼굴이 굳는 대환.

3차장 뭐해? 추적 프로그램 가동 안 시키고?!

대환 .. 추적 불가 지역입니다.

3차장 와?? 거기 어딘데??!!

대환 (얼굴 일그러지며) NASA 통제실요.

3차장 ..NASA.. 미국??!!

대환 놈들이.. 그쪽에 백도어를 심어 둔 것 같습니다.

3차장 (얼굴이 이글어진다) 쫓아!!

진옥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최고 보안 구역을 무단으로 들어가는 거라..
심각한 외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차장 그냥.. 해.. 아냐.. 아냐.. .. 미국 쪽 연결해라카이!!

대환 늦죠. 그럼..

요원1 NASA 쪽에서 역추적프로그램 시작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대환과 3차장 지시를 기다리는 요원들.

3차장은 안절부절하고, 안경을 벗더니 천천히 렌즈를 닦는 대환, 다시 안경을 고쳐 쓴다.

대환 .. 상황실!!

요원들 (일제히 대환을 주시한다) ..

대환 국내 IDC 연결 끊어. 전부!!

요원1 ..전..부... 말입니까?!!

3차장 (불안) 또 와?? 끊으면 어떻게 되는데?!

진옥 (담담하게) 대한민국 인터넷이 멈출 겁니다.

3차장 미쳤나??!! 이거 우리가 결정할 껌냐이 아냐.

원장님.. 아니 VIP 허락이 떨어져야..

대환 (버럭) 지금 총 쏘고! 미사일 들이 닥치는데!! 위쪽 명령만 기다려요??!!

3차장 그럼?? 인터넷 다 끊어 놓고 못 잡으면??

대환 (냉소) .. 3차장님은.. 여기 없었던 거죠. 제 단독 결정이니까.

대환 말에 얼굴이 굳어지는 3차장, 폰으로 확인하며 슬그머니 상황실을 빠져나간다.

대환을 바라보며 수군거리는 상황실 요원들.

진옥 (접속 IP를 추적하는 모니터를 보며) 무리할 필요 없어. 매뉴얼대로 해.

대환 (독기) NASA.. 블러핑이잖아. 그럼 우리도 콜 해줘야지.

진옥 (뭐라 말하려다 더 이상 말리지 못한다) ..

대환 (짜! 짜!! 크게 손뼉 치며) 상황실 주목!!

요원들 (일제히 대환을 쳐다본다) !!
대환 지금부터 비상 단계 레드 원으로 전환한다.
IDC 연결 모조리 끊고, 비상 상황 통보해!!

대환의 지시에 동요하던 요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걱정스럽게 대환을 바라보는 진옥.

77. 존안금고/승재 자동차/비품창고 - 오전

벽서 파일이 들어 있는 붉은 USB를 들고 고민하는 지민.

승재 애들 미쳤나봐. IDC를 전부 차단했어. 페이크 IP들이 모두 뚫릴 거야.
나와. 당장!!
준서 선배. 지금 나가야 돼요!!

준서와 승재의 경고에, 들고 있던 붉은 USB를 존안금고 서버에 꽂는 지민.
순간, 굉음을 내며 데이터를 검색하는 존안금고 서버.
모니터에 뜬 파일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AR 글래스 너머 파일들을 빠르게 손으로 스와이핑하는 지민.
무한 루핑으로 재배치되려다 멈칫거리는 파일들, 붉은 USB가 미친 듯이 깜박거린다.

승재 ..지금.. 뭐 한 거야?!
준서 설마.. 직접 벽서 파일로 접속했어요??!!
지민 (무시하고 남은 파일들을 검색한다) ..
준서 곧바로 위치 추적당해요!! 나가요 당장!!

승재와 준서의 거듭된 경고에 이어폰을 빼버리는 지민, 남은 파일들을 확인한다.
순간, ‘삐릭!!’ 소리와 함께 스르르 사라지는 수 많은 파일들!!
벽서 파일과 연동되는 암호키가 뜨더니, 붉은 USB로 이동한다.

78. 국정원 상황실 - 오전

동시다발적으로 해킹되던 곳이 하나둘 꺼져간다.
상황실 대형 모니터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해킹 장소로 점점 좁혀진다.

대환 좌표 나오면 추적팀에게 바로 전송해.
요원1 (바쁘게 확인하며) 지금!! 벽서 파일이 활성화됐습니다!!
대환 (황당) 이 새끼들이.. 진짜 목숨 걸었구나~ 좌표 띄워!! 어디야?!

상황실 모니터에 마지막 좌표가 위성사진으로 점점 확대되자, 크게 술렁이는 요원들.
최종 위치가 국정원 건물이다.

요원1 본사 X47 구역입니다.

대환 ..존안.. 금고?? 다시 확인해 봐!!
 요원2 (존안 금고 CCTV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 깨..꼴한데요?!
 대환 (모니터 보며) CCTV 위치 바꿔.
 요원1 (당황) 컨트롤이 안 먹힙니다.
 대환 (씨익) 새끼들.. 거기 짱박혀 있었구나~ 막다른 곳인데.. ㅋㅋ
 추적팀 X47로 투입시키고 회사 모든 출입구 차단해. 이 시간부터 회사 전체를 보안 최고등급으로 전환한다!! 이번엔 절대 못 빠져나가. 새끼들아~

79. 존안 금고/승재 자동차 - 오전

붉은 USB로 복사 파일 암호키가 이동됐다.
 하지만, 계속 AR 글래스를 쓴 채, 국정원 결제 파일 시스템을 검색하는 지민.

준서 뭐해요? 암호키 손에 넣었잖아요.
 지민 (대꾸없이 국정원 결제 파일들을 검색한다) !!
 승재 국정원 헬기들이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어. 백도어도 모두 제거됐고.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을 거야. 나와. 당장!!
 지민 (결제 파일들을 확인하며) 누가 우릴 버렸는지 알아야겠어.
 준서 (노트북 닫으며) 저도 진짜 궁금해요. 그 새끼가 누군지??
 하지만 더 이상 무리예요. 지금 안 나가면..
 지민 (다시 노트북 열며) 나가. 먼저.
 준서 선배!!!
 지민 나가라니까!!
 준서 (황당해하다 헛웃음) ..
 승재 이지민.. 미친 꼴아이같은 게.. 늘 지 맘대로야. 난 빠져. 혼자 잘 해 봐라~

접속 화면에서 나가버리는 승재.
 지민은 국정원 결제 파일들을 계속 검색한다.
 뒤에서 지켜보던 준서, 표정이 서서히 변하더니, 지민에게 다가선다.
 이전과 달리 서늘해진 준서의 얼굴!!

그때, ‘삐릭!!’ 소리와 함께 열리는 국정원 결제 파일들!!
 현재 구조 조정 중인 지사와 관련된 결제 파일들이다.
 눈에 독기가 차오른 지민과 다가서다 움찔 놀라는 준서.

80. 존안금고 앞/안 - 오전

“팡!!” 소리와 함께 존안 금고 문이 떨어져 나가고,
 “핑!! 핑!!” 섬광탄 터지는 소리와 함께 일사분란하게 들어오는 국정원 추적팀!!

소총에 달린 붉은 레이저 포인트가 존안금고 곳곳을 훑는다,
 소리가 들려오는 존안금고 컨트롤 박스 쪽으로 빠르게 덮치는 추적팀!!

81. 국정원 상황실/ 존안금고 - 오전

추적팀 카메라 영상으로 보여지는 존안금고 컨트롤 박스.

자동 해킹 프로그램이 노트북에서 실행되고 있고, 사람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추적1 티켓 미확인!! 티켓 미확인!!

대환 없다니! 어떻게 된 거야?!

추적2 (서버 컨트롤 박스를 확인하며) 패러럴로 다른 곳에서 접속한 것 같습니다!!

대환 회사에 DMZ까지 설치했다 이거지.. 새끼들이.. 모든 CCTV 재부팅 해!!

상황실 모니터에 국정원의 모든 CCTV가 꺼졌다 빠르게 다시 켜지고.

여러 모니터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검색한다.

곧, 한쪽 모니터에서 비상계단으로 급하게 내려가는 지민과 준서가 자동 타켓팅 된다.

82. 국정원 비상계단 - 오전

- 비상계단으로 빠르게 내려가는 지민과 준서.

순간, 문 열고 나오는 요원들과 마주치고,

총을 겨누는 요원을 눈 깜짝할 사이에 쓰러트리는 준서.

준서 (경비요원을 제압하며) 먼저 내려가요!!

망설이던 지민, 준서를 보더니 계단 밑으로 내려간다.

- 빠르게 비상계단을 내려가는 지민, ‘쿵!!’ 몸이 벽에 밀쳐진다.

보면, 총을 겨누는 강인이다.

강인 암호키는?!

지민 (피식) 날 스토킹 하는 거야?

강인 (지민 몸을 빠르게 수색하며) 구원자. 네 목숨줄이라니까!!

지민 구원자 좋아하시네~ (쏘아보며) 날 미끼로 삼았잖아.

강인 (무표정) 씨드9을 잡아야 하니까.

지민 씨드9?? 그 새끼들 잡으면? .. 난??!!

강인 목숨 건진 거나 감사해.

지민 ..아이고.. 고마우셔라. 눈물이 다 나네~

강인 (지민을 밀치며) 어딴어? 벽서 파일??!!

지민 너부터 걱정하지지~

지민을 쏘아보던 강인, 멈칫한다.

보면 지민 손에 무언가가 들려져 있다.

순간, ‘파팍!!’ 전기 충격기에 몸이 뒤로 튕겨 나가는 강인.

급히 내려오던 준서, 총으로 강인을 겨눈다.

그런 준서 팔을 강하게 저지하는 지민.

지민 그럴 시간 없어!!

준서를 세차게 밀치며 밑으로 내려보내는 지민,
비틀거리며 일어나려는 강인의 턱을 주먹으로 날려버린다.
지민, 빠르게 밑으로 뛰어 내려간다.

83. 국정원 로비 - 오전

비상구 출구로 달려 나가는 지민과 준서.
출구 쪽에 기관단총으로 중무장한 요원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다.
다른 출구로 향하지만, 총구를 겨눈 채 지민과 준서를 조여오는 추적팀!!
준서, 폰을 꺼내 단축 번호를 누르고 바로 끊는다.

지민 (거세게 숨을 몰아쉬며) ..헉..헉.. 무리였나..
준서 (주위를 둘러보지만 탈주로가 모두 막혔다) !!
지민 (고개를 떨구며) .. 헉.. 헉.. 나 때문에.. .. 내가...
준서 (자책하는 지민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선배.. 이번엔 날 믿어 봐요~

지민은 웃는 준서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다.
지민과 준서에게 겨누지는 붉은 레이저 포인트, 그 수가 점점 많아지고.

그때, ‘펑!!’ 소리 들리고, 동시에 요란하게 울려대는 비상벨!!
총구를 겨누며 다가서던 요원들, 놀라 주위를 살피고.
곧, 비상벨 소리에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국정원 사람들.
그 혼란스러움에 당황한 지민과 웃는 준서.

84. 국정원 상황실 - 오전

요란한 비상벨 소리와 함께 갑자기 어수선해지는 상황실.
모니터 CCTV에는 국정원 곳곳에 하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요원1 화재 경보입니다.
대환 속임수야... 비상벨 차단하고 저 새끼들 잡아!!

순간, ‘파팡!!’ 소리와 함께, 이번엔 국정원 건물까지 흔들린다.

요원2 건물 내 폭발 감지!! C, F, K, 구역에서 폭발물 발견!!
(무전소리) 타켓이 직원들과 뒤섞여 저격 불가!! 저격 불가!!
대환 이 새끼들이!!

권총을 꺼내 황급히 상황실을 나가는 대환.

85. 국정원 로비 출구 - 오전

비상벨 소리에 몰려나온 국정원 직원들과 뒤엉켜 출구로 밀려 나가는 지민과 준서.
추적팀과 경비팀이 총구를 겨누지만, 주위 인파로 저격 포인트를 계속 놓친다.

대환 (달려오며) 싸!! 쏘라구!!

대환의 명령에 저격하려는 추적팀, 하지만 주저하고.
직원들과 함께 밀려 나가던 지민, 총 든 대환을 보더니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든다.
총구를 겨누는 대환, 지민을 노리는데, 순간 총구를 낚아챈다. 진옥이다!!

대환 놔!! 저 새끼들 이대로 못 보내!!

대환의 발악에도 고개를 저으며 총구를 끝까지 놓지 않는 진옥.
그 사이에 지민과 준서는 직원들과 뒤섞여 출구 밖으로 사라진다.
‘씨발! 씨발!!!’ 맨바닥을 발로 차며 울분을 토해내는 대환!!

- 멀찍이서 직원들과 함께 사라지는 지민과 준서를 지켜보는 누군가,
혼란스러운 현장을 조용히 떠나는 강안.

86. 유럽 고성(古城)/원탁 회의실 - 오후

위로 까마득하게 보이는 어둑한 고성 계단을 환한 햇살이 밝혀주고 있다.
이전과 달리 신이 나 깡충깡충 뛰어 위로 올라가는 백팩을 멘 레인, 발걸음이 가볍다.

거대한 석문을 열고 들어가자, 원탁에서 수군대던 기사들이 일제히 대화를 멈춘다.

원탁3 오.. 드디어 벽서를 구했나 보군.

원탁2 (탐욕에 눈빛 이글거리며) 어서 꺼내 봐.

내가 어떻게 기록됐는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야. 빨리!!

원탁4 (다른 기사들을 보고 웃으며) 덤으로 우리가 누군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테고.. 하하~~

원탁 기사들의 성화에 대답 없이 기사들을 쳐다보는 레인

원탁1 .. 왜? .. 문제.. 있나??

레인 먼저 약속할 게 있습니다.

원탁1 약..속?!

원탁2 (피식) 착각하나본데.. 씨드9의 솔저는 요구할 권한이 없어!

레인 (미소) 그래서.. 그 권한을 원합니다~

원탁3 솔저 따위가 이 원탁 위로 올라오겠다고?! .. 시건방진..

레인 (빙긔) 킹, 나이트, 솔저의 씨가 어찌 따로 있겠어요~

원탁4 (서늘) LJ1497!! 주제를 잊으면 명이 줄어들어~
레인 애초에 안전함을 원했다면.. 씨드9에 들어오지를 않았겠죠~

물끄러미 레인을 바라보던 원탁1, 웃음을 터트리자 원탁 회의실이 흔들거린다.

원탁1 하하하!! .. 그래.. 우린 탐욕을 사랑하지. 그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원탁3 그래도 이건 룰에 어긋나는..
원탁1 (손을 들어 말 끊으며) 벽서 파일에 대한 킹의 관심이 지극해.
기사들 (눈빛들이 번득인다) !!
원탁1 LJ1497!!.. 다음엔 증명해야 될 거야. 이 원탁에 올라 올 자격이 있는지.
레인 (고개 바닥에 숙이며) 목숨 걸고.. OBOEDIO(복종하겠습니다)!!

레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고성 전체에 울려 메아리친다.

87. 3차장 방 - 오후

오래된 한지에 짙은 보이차 한편이 놓여있다.
고급스런 찻잔으로 차를 마시고 있는 3차장과 진옥.

3차장 회사가 이전 같지 않아.. 일 하는 게 다들.. 쫓쫓..
(차 마시며) 어땠노? 괜찮제?
진옥 (찻잔을 내려놓으며) 보이 차 흥인이네요. 1960년산.
3차장 (고개 끄덕이고 보이차 마시며) 감칠맛 나는 이 쪼매한 덩어리가
제네시스 한 대 값이라잖아. 몸에 좋다카던데.. 난 믹스 커피가 딱이야~
진옥 (웃으며 보이차를 음미한다) ..
3차장 이번 구조 조정 마무리 되면.. 내 후임으로 자넬 추천할 생각이야.
진옥 (동요없이 차 마신다) ..
3차장 날이 잘 든 갈은 누구 손에 쥐어지는냐에 따라 천하의 보검이 될지, 사람
잡는 흥기가 될지 결정된다 안카나. .. 벽서 말이야.. 자네 생각은 어땠노?

차를 마시던 진옥과 반응을 살피는 3차장.

진옥 (미소)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명령에 따를 뿐이죠.
3차장 (보이차를 후루룩 마시며) 이래서 자넬 좋아하는 거 아이가. 믿는다카이~
진옥 (찻잔을 내려놓으며) 네. 벽서 파일은 국정원법에 따라 처리될 겁니다.
3차장 (멈칫하다 미소) ..역시.. 타고 난 감찰통이야~
(흥인을 건네주며) 가져가. 우리 미래도 생각해보고.
진옥 (일어나며) 고맙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 더 하실 말씀이라도..

할 말 더 없다며 손사래 치며 웃는 3차장, 진옥이 나가자 흥인을 옆으로 치워버린다.

88. 승재 작업실 - 저녁

모니터에 떠 있는 검색 프로그램.
모노 톤에 단순 검색창만 깜빡거린다.

승재 (실망스런 눈으로 모니터 보며) 에게.. 이것 때문에 그 개고생 한 거야?!
준서 암호키로 폰 벽서 파일 맞죠?!
지민 (단순 검색창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승재를 힐끗)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승재 저 조잡한 UI하며 색 배치 봐라. 쏘울이 없어. 전혀.
지민 미래정보에도 그런 사람 있었지~
승재 (깜빡이는 검색창을 보다 눈이 커지며) ..설마.. 내 해킹 툴??!!
지민 (검색창을 뚫어지게 보며) 현재 대선 후보 1위가 누구지?
승재 갑자기?! .. 오세진인가? 김..재영??

벽서 파일 검색창에 대선후보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는 지민.
깜빡거리는 벽서 파일 검색창, 아무런 반응이 없다.
지켜보던 지민과 준서, 승재 얼굴에 실망감이 흐르고.

그때, ‘우웅!!’ 컴퓨터 팬 돌아가는 소리 들리더니,
동시에 여러 모니터로 쏟아져 들어오는 엄청난 파일들!!
마치 생성형 AI가 질문에 대답하듯 정보를 빠르게 출력해낸다.
그 자료들을 확인하는 지민, 준서, 승재..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다.

89. 국정원 상황실 - 저녁

CCTV에 찍힌 지연과 준서, 승재에 대한 정보들이 검색되고 있는 국정원 상황실.

대환 머리카락 한 가닥이라도 놓치지 마.
잔고, 카드 내역, SNS, 인터넷 댓글, 똥 썬 것까지 탈탈 털어!!

그때, 자료를 검색하던 요원1, 당황한 얼굴로 시스템을 재점검한다.

요원1 회사 1급 보안 문서를 외부에서 접속하고 있습니다!!
대환 안 그래도 바빠 죽겠구만.. 누군데?!
요원2 (상황실 모니터에 화면 띄우며) 그게.. 로그 기록이 없습니다.
대환 뭘??!! (빠져나가는 자료를 보며) 네트워크 차단시켜!!
요원1 블록체인 분산 자료라 차단이 안 먹힙니다!!

무방비로 유출되는 1급 기밀 자료들을 보며 하얗게 질리는 대환, 그때 대환 폰이 울린다.

90. 승재 작업실 - 밤

검색창 아래로 유력 대선후보의 자료들이 떠 있다.
외진 곳 자동차 안에서 자료를 건네받는 사진, 어두운 호텔 방에서 찍힌 동영상,
해외 조세 피난처에 개설된 비밀 계좌들과 각종 음성 파일들이다.

특이한 건 한글 뿐 아니라 외국어 자료들도 보인다.

승재 (자료를 확인하며) 회사가 골 때리는 걸 만들었네. 하나하나가 초대박이야...
준서 더 놀라운 건 대한민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각국의 정보기관 자료들까지 있네요.
지민 (다양한 자료들을 보며) 벽서 파일은 기존 사찰 자료는 물론이고
각국의 비밀문서까지 열람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이었어...
승재 우이씨..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저작권 침해 아냐?!

이번엔 승재가 다가가 벽서 파일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하자 사진과 동영상도 떠오른다.

- 새벽 한적한 한강에서 손을 잡고 걷는 마스크와 모자를 쓴 두 남녀.
- 집 앞에서 헤어지는 두 남녀, 집으로 들어가려다 다시 돌아와 남자에게 안기는 여자.
- 마스크 쓴 여자 얼굴이 슬쩍 드러나는데, 최근 핫한 걸그룹 아이돌 센터 서원이다!!

승재 어쩐지.. 요즘 노래에 감정이 짝짝 실리더라. 물 오른 게 실력인 줄 알았는데, 사
랑이었네.. .. (서원 사진을 보다 분노) 근데.. 우리 이쁜 서원이를..
힘 있는 것들 문제 터지면 이슈 덮는 데 쓰겠지. .. 더러운 새끼들!!

애정하던 걸그룹 센터가 사랑에 빠진 사진들을 보며 못내 아쉬워 하는 승재.
벽서 파일 검색창을 뚫어지게 보던 지민, 이번엔 'SEED9' 검색창에 입력한다.
엔터 키를 누르자, 주룩룩 떠오르는 인물 사진과 자료들.

승재 (가웃) 씨드9? 신생 NGO야? IT 회사??
지민 (준서를 쳐다본다) ..
준서 (사진들을 살펴보며) 음... 알 것 같기도 하네요.
검찰, 국세청, 감사원의 에이스들이죠. 대기업 3세들과 언론사 쪽도 있구요,
승재 대한민국을 뒤에서 찢어먹는 인간들이라 이거네.
근데 씨드9은 왜? 너도 함 들어가 보게?? ㅋㅋ
지민 (웃으며) 그래 볼까 해서~
승재 꿈 깨서. 개들이 정신 나갔어. 급 떨어진다고 말도 안 섞으려고 할 걸?
지민 벽서 파일이라면 관심 가지겠지~

컴퓨터에 꽂힌 붉은 USB를 빼내더니, 티타늄 케이스에 담아 준서에게 건네준다.

준서 (놀라며) .. 선배..
지민 회사 라인 아직 살아있지?
승재 (붉은 USB를 보며 못 내 아쉬워하는 눈치다) ..
지민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봐. 최대한 빨리.
준서 (티타늄 케이스 받으며) 벽서 파일이면 우리 제안을 쉽게 거절 못 할 겁니다.
연락드릴게요~

준서, 티타늄 케이스를 들고 작업실을 나간다.

승재 (힐끗) 너.. 변했다. 사람 안 믿잖아.

지민 (대답 대신 작업했던 파일들을 정리한다) ..
승재 하긴.. 훈훈하지. 실력 좋지. 네 지랄맞은 성질까지 다 받아줘. 게다가 연하~
널 보는 눈이 장난 아니던데..
지민 (սսսս하게 웃으며)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잖아~ 너 야매 있지?
승재 야매라니?!! 스팸 메일의 에르메스를!!
지민 (자리에서 일어나며) 메일로 썩.
승재 불법 장사한다고 갈굴 땀 언제고.. 엇다 쓰게??
지민 (작업실 나가며) 신경 꺼. 더 이상 얼굴 볼 일 없을 테니까.
승재 (입을 삐죽거리며) .. 제발!! 플리즈!!
지민 (나가다 멈추며) 그리고.. 여기 정리해. 회사가 찾아낼 거야. 빠를수록 좋아.
승재 웬일이래? 남 걱정 다 하시고? 사람 변하면 큰일 나는데... .. 너나 조심하셔~

궁시렁거리는 승재, 지민이 나가자, 아쉬운 얼굴로 자신의 불법 스팸 메일을 전송한다.

91. 자동차 - 밤

어두운 자동차 안에서 지민에게 받은 붉은 USB를 폰에 꽂는 준서.
기대 가득한 눈빛으로 폰을 확인하는데, 어둠 속에서 점점 눈이 커진다.

- 준서 폰에 꽂혀있는 붉은 USB가 깜빡거린다.

92. 국정원 회의실 - 밤

얼굴이 굳은 대환, 회의실로 들어간다.
회의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3차장과 진옥.

3차장 긴 말 안 해. 이 시간 이후로 벽서 파일.. 감찰국이 전담해.
대환 3차장님!!!!
3차장 (서류 던지며) 벽서야 벽서!! 앞으로 뭐가 또 터질지 모른다카이!!
대환 벽서는 제 목을 걸고서라도..
3차장 니 모가지 아무도 관심 없다. 원장님 결재 떨어졌어!!
대환 (얼굴 일그러진다) !!
3차장 (나가며) 뭘 짓을 해도 좋다카이. 무조건 벽서 파일 회수해.
뭘라도 나오면 곧바로 보고하고!!

3차장이 나가자, 난감해하는 진옥과 분노로 어쩔 줄 몰라 하는 대환.

93. 국정원 복도/도심 뒷골목 길 - 밤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는 진옥, 폰이 울린다.

진옥 (전화 받으며) 감찰국장입..

지민 미래정보.. 당신 짓이지?!

진옥 (흠칫) ..이..지민??

지민 구조 조정.. 당신 기획안이잖아.

진옥 (사무적) .. 맞아. 내 기획안.

지민 (쉽게 인정하자 헛웃음) .. 이유가 뭐야? 우릴 왜 버렸냐고??!!

진옥 회사 명령이었으니까.

지민 명령?? 그 새끼가 누구데?!

진옥 지금쯤은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민 .. 씨..드9??!!

진옥 회사에 있는 쥐새끼를 잡으면 씨드9이 누군지 알게 되겠지.

지민 그 쥐새끼 잡으면?! 난??!!

진옥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하겠지. 물론 결과에 따라서 말이야.

그러려면 먼저 내줄 게 있을텐데.

지민 ..쥐새끼부터 잡아. 벽서는 그 다음이야.

전화 톱 끊긴다. 걸려 온 발신자불명 번호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진옥.

- 전화를 끊은 뒤 승재 작업실로 들어가는 지민.
그때 폰 울리고, 메시지를 보더니 눈이 확 커진다.

94. 다리 밑 - 새벽

인적이 없는 다리 밑에 자동차가 서 있다.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지민.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놀라 돌아서는데, 잔뜩 상기된 용훈이다.

용훈 (다가서며) 괜찮아?

지민 (경계하며) .. 오빠 애긴 뭔데?!

용훈 우리 쪽 필터링하는 정보요원이 찾아왔어.. 상호 형 사진 보여주며..
이것저것 물어보더라. 정신병원 쪽을 뒤지고 있다던데..

지민 .. 그래서??!!

용훈 연락 끊겼다고 했지. .. 어떻게 된 거야?

지민 신경 꺼. 오빠 물으면.. 부산 고향쪽으로 내려갔다 그래.

용훈 .. 불법 해킹 조직!! .. 너 아니지?

지민 (쏘아보다 떠난다.) ..

용훈 억울하게 정리해고 당했다며?? 국정원 말이야!

지민 (걸어간다) ..

용훈 그쪽 상대하려면.. 언론 쪽 말고는 방법 없어!!

지민 (계속 걸어간다) ..

용훈 상호 형한테 도움 많이 받았잖아. 이번엔 어떤 식이든 힘이 되고 싶어!!

용훈의 외침이 다리 밑에서 메아리친다.
발걸음을 멈춘 지민, 돌아선다.

지민 (멈칫하더니 돌아선다) ..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용훈 걱정마. 요즘 어떤 세상인데. 확실한 물증 있으면 대통령도 감옥 가.
 진실은 거짓을 이기니까.
 지민 (흔들린다) ..
 용훈 스모킹 건은? .. 미래정보 자료 말이야.

용훈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지민, 얼굴에 미소가 흐른다.

지민 역시 국내 최대 언론사다워. 회사 이름은 어떻게 안 거야?
 용훈 (빙긔) 얘기했었잖아.
 지민 (미소) 언제?
 용훈 지난 번 동기 모임 때. 기억 안 나? 다른 애들도 다 알던데? 미래정보.
 지민 그래?? .. 근데 어찌냐. 회사 이름 말한 적 없거든. 단 한 번도!!
 우리 사무실 첫 번째 규칙이니까!!
 용훈 아이.. 말했다니까. (다가서며) 그리고 그게 중요해 지금?
 지민 (확 밀치며) 당연하지. 또 구라치니까.
 용훈 ..뭐래??
 지민 너.. 잔머리 굴릴 때 왼쪽 입술이 쳐 올라가거든. 그 꼴볼건 여전해~
 용훈 무슨.. .. (인상 바뀌며) 진짜 그래?? 씨발.. 그래서 바람 핀 거 마누라가
 눈치챘나? (지민 팔 잡으며) 진작에 얘기 좀 해주지~

용훈을 보고 웃는 지민, ‘퍽!!’ 용훈 턱을 날리고 도망치는데...

그때, 누군가 지민을 잡더니 목에 뭔가를 찌른다.
 보면, 지민 목에 주사기를 빼는 누군가!!
 어깨를 으쓱하는 용훈에게 봉투를 건네주고, 확인하면, 불법 해킹 범죄 보도 자료들이다.
 지민 거세게 반항하지만, 눈이 흐려지고 스르르 무너진다.

95. 안가- 새벽

..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의식이 돌아오는 지민, 책상과 의자 외에 장식 하나 없이 한 면이 거울로 된 취조실이다.

무거운 적막감에 점점 몸이 떨려오는 지민.
 그때, 문 열리는 소리 들리고, 강안이 들어오더니 서류를 지민에게 보여준다.

보면, ‘금융정보거래원, 국방과학연구소, 고리 핵발전소, 국정원, VIP 집무실!!’
 7년 동안 지민이 미래정보에서 모의 해킹해 왔던 주요 미션들이다.

지민 니들 실수하는 거야!! 변호사 불러줘!!

소리치는 지민 앞에 다른 서류가 던져진다.
 오부장, 미리, 상일과 두만의 사망 처리된 사진들이다.

지민 (움찔) ..이런 거로 겁먹을 것 같아?? 회사가 우릴 희생양 삼는 거 아냐??!!

무표정한 강안, 이번엔 노트북에 뭔가를 입력하더니 화면을 보여준다.

화면에는 “국정원 방첩과 3팀장 강 안” 정보파일이 떠 있다.

멈칫하는 지민. 이번엔 아이디와 비밀번호 창을 넘기는 강안.

강안 (노트북을 가리키며) 증명해봐. 회사 사람이면 바로 내보내 주지.

지민 (능숙하게 국정원 창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정규직이 아니라 무시하나본데.. 회사 서버에다 수 천 번 피드백 보고서 업로드 했어. 보안 취약점과 함께!!

‘빠릭!!’ 에러 메시지 뜨고, 다시 입력하지만 에러 메시지만 반복하다 화면이 잠겨버린다.

지민 (냉소) 아예 존재 자체를 거부하겠냐?

강안 오해하나 본데.., 미래정보는 회사랑 관계없어.

지민 그럼.. 국정원에서 모의 해킹 교육받았고, 북쪽 경찰총국이란
중국 공안부 똥은 것도 부인하겠네? 웃기지 마!!

강안 모의 해킹팀 운영했었지. 7년 전에. .. 이후로 재가동된 적 없어.

지민 (눈이 확 커지며) 무슨 소리야?! 7년 동안 매일 미션이 내려왔고.
피드백 보고서도 받아 갔어!! 그건 유명이야?!!

강안 어떤 면에서는.. 하지만 분명한 건 미래 정보 보고서가 회사에
업로드 된 적 없어.

지민 .. 그럼 누가 미래정보는 뭔데?! 어떤 새끼들이 만들었는데?!!

강안 (무표정하게 쳐다본다) ..

지민 (눈이 흔들리며) .. 설..마..

강안 조세 피난처로 연결돼 세상을 움직이는 다국적 금융 정부.
미래 정보를 하루에도 수 십, 수 백 개 만들고 없앨 수 있지.

지민 (분노) .. 씨..드9..

강안 (눈빛이 차갑다) ..

지민 그럼.. 준서는?!!

강안 (얼굴이 다른 사진을 던지며) 장위향, 류세이 겐지, ऐ런 조..

미래정보에서는 최준서로 불렸었지.

지금은 다른 얼굴과 이름을 준비하고 있을 거야.

지민 (각기 다른 준서 사진들을 확인하며 눈빛이 크게 흔들린다) ..

강안 한때 회사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씨드9의 수많은 개들 중 하나. 기밀 유출,
주가 조작, 암살, 전쟁, 심지어 바이러스 유포까지.. 시키는 건 뭐든 하지.

지민 (고개 흔들며) .. 아..냐.. 아니야..

(몸을 심하게 떨며) 거짓말이야.. 거짓말.. 또 날 속으려는 거지?!!

취조실 마이크를 끄는 강안, 패닉에 빠진 지민을 와락 끌어당긴다.

강안 협조하든지 개 죽음 당하든지.. 네 선택만 남았어!!

지민 (허망한 눈빛) ..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죽으라고 일했어. 정규 요원
출입 카드를 목에 매고 지하철 타는 상상으로 그 시간을 버텼어. 단 한 번도 의문이나
의심을 가진 적 없고. 그런데 그게 다 범죄라고?!!

강안 (무표정하게 바라본다) ..
 지민 (눈물이 주루룩..) 미래 정보 쓴 적 있었다며? .. 적어도 애긴 해줬어야지.
 쓰다 그냥 버리는 게 어딴어?? .. 우린.. 일회용 쓰레기 아냐!!
 강안 (움찔.. 더 몰아붙이며) 마지막 기회야!! 벽서 파일 어딴어? 말해!!

얼어붙은 지민, 현실을 부정하기라도 하듯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무너지는데,
 그때, 문 열리고 들어오는 검은 정장 사내들.

감찰1 (신분증 보여주며) 지금부터 용의자 이지민은 국정원 감찰국이 맞습니다.

지민, 더 이상 반항할 기력도 희망도 없다.
 패닉에 빠진 지민을 양쪽에서 붙잡고 끌고 나가는 감찰팀.
 강안, 감찰팀을 저지하려는데,

감찰1 (명령서 보여주며) 그리고.. 이 건에서 손 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불응 시 국정원법 위반으로 체포됩니다.

끌려 나가는 지민을 물끄러미 지켜보는 강안,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벽에 던져버린다.

96. 감찰팀 자동차 - 새벽

빠른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는 감찰팀 자동차.
 뒷좌석 감찰 요원들 사이에 지민이 있고, 지민의 눈에 초점이 없다.
 앞좌석에서는 지민의 소지품과 샤넬 백을 확인하는 감찰1.
 폰이 울리자, 전화를 받는다.

감찰1 복귀 중입니다. 지금 확인 중인데... 찾으면 바로 연락...

순간, ‘쿵!!’ 소리와 함께 미친 듯 급회전하는 감찰팀 자동차.
 ‘팡!!’ 에어백 터지고, 가까스로 정신 차린 지민.
 주위를 둘러보자, 터진 에어백에 놀려 빠져나오느라고 발버둥치는 감찰들.

그때 ‘썩! 썩!’ 유리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앞좌석에서 붉은 피가 튀다.
 놀란 뒷좌석 감찰2,3. 총을 꺼내 창밖을 살핀다.
 ‘슈!슈!!’ 연달아 터지는 감찰2,3 머리!!

붉은 피범벅에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는 지민.
 곧, 깨진 창문 너머로 소음기 단 총구가 모습을 드러나는데,

준서 (얼굴 삐죽) 좀 늦었죠~ 선배??

97. 준서 자동차 - 새벽

도로를 달리는 검은 SUV.

피 묻은 얼굴로 수갑을 찬 채 운전하고 있는 지민.

옆좌석에는 총을 겨눈 준서가 지민의 소지품을 살피다 샤넬 백을 들어 보인다.

준서 (장난스럽게 흔들며) 큰맘 먹고 질렸을 텐데.. 다행히 무사하네요~
지민 (운전하며) .. 왜 나왔지?
준서 (미소) 친구나 만나는 사람 딱히 없죠. 가족이라곤 6살 지능의 오빠 하나.
나름 쓸만한 해킹 실력에다.. 또 포기를 모르잖아. 그러니 딱이죠~
지민 (허탈하게 웃는다) 지금까지 살려준 게 벅서 때문이야?
준서 에이.. 그런 말 하면 서운하죠~
지민 (쏘아본다) !!
준서 이전에 미래정보 미리랑 규칙까지 어기며 날 밤 까며 술 마셨잖아요.
그때 알게 됐죠. 선배는 나랑 닮은 구석이 많다는걸요. 거기다 매번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잖아. 지금처럼요. 그러니 어떻게 선배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ㅋㅋ
지민 .. 도청까지 했니??!!
준서 성실한 미래정보의관리자라면.. 당연한 거 아닌가?
무슨 생각하고, 뭘 좋아하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세세하게 체크하는 거죠.
아마.. 선배보다 제가 더 많이 안다에 제 1년 치 연봉을 걸죠~

빙긋 웃더니 티타늄 케이스에서 붉은 USB를 꺼내는 준서, 손으로 망가트린다.

(F.B.) 86썬 승재 작업실

‘씨드9’에 떠오른 사람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지민.
컴퓨터에 꽂힌 붉은 USB를 빼다 다른 붉은 USB와 바꿔치기 한 뒤,
티타늄 케이스에 넣어 준서에게 건네준다.

준서 (손 내밀며) 이제 선배 장난은 여기까지. 벅서 파일 넘겨요~
지민 (명한 얼굴로 운전한다) .. 이대로 못 끝내.
준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국정원에 잡히면 온갖 죄 다 붙여 법정 최고형
때릴텐데.. 환갑 지나 할머니 돼서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죠~
지민 대신 너처럼 씨드9의 개가 돼라?
준서 하하하!!! 선배~ .. 주인있는 개는 굴거나 추위에 떨지 않아요.

총을 겨누며 지민 몸을 뒤흔치는 준서, 그러다 자신이 준 목걸이 패턴트 안에서
붉은 USB를 찾아 꺼낸다. 허망해하는 지민.

준서 ‘왜 나왔지?’ 라고 물었죠. .. 선배가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또 뭐죠??
지민 (움찔) ..
준서 그냥 태도를 바꿔요. 세상이 달라지니까.
지민 ..달라지면..?
준서 샤넬 뿐 아니라 에르메스로 컬러마다 가질 수 있구요. 오빠 병원비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사무실 커피 안 흠쳐가도 되죠. 친구들이랑 느긋하게 브런치에
해외여행도 즐기면서요. 솔직히 부러워했잖아요~~
지민 (쓱쓱하게 웃는다) ..

준서 세상이 해주는 거 없거든요. 먹을 건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지. 안 그래요?
 지민 (눈빛이 흔들린다) ..
 준서 미래 정보보다 10배 더 벌게 해줄게요. 함께 가요. 선배~
 지민 (허탈한 웃음) ㅋㅋㅋ.. 그러게.. 진작에 그럴 걸.
 준서 선배는 말이 통할 줄 알았다니까~ 근데 속도가 좀 그러지 않나?

준서의 경고에도 더 굉음을 내는 자동차, 빠르게 도로 위를 질주한다.

준서 (피식, 총구 겨눈다) 장난이 심한데~
 지민 (속도 올리며) 그래도 이거 하나는 고마워. 오래된 고민이 해결됐거든.
 준서 (지민 머리에 총구 들이대며) 속도.. 줄여요!
 지민 (부우웅!! 더 액셀레이터를 밟으며) 태도를 바꾸라며?
 준서 (총구 더 들이대며) 속도!! 속도!! 줄이라니까!!!!
 지민 (실성한 듯 웃으며) .. ㅋㅋ... 최준서..
 준서 (미친 듯한 속도감에 당황) ..씨발.. 왜??!!
 지민 (섬뜩하게 웃는다) ..안전벨트 했니??

눈이 커지는 준서. 순간, 자동차 핸들을 확 꺾어버리는 지민.
 ‘부웅!!’ 굉음과 함께 도로 밖으로 자동차가 튕겨 나가고, 공중에서 빙그르 회전하더니,
 ‘와장창!!’ 도로 바닥에 불꽃을 일으키며 밀려 나가다 가까스로 멈춘다.

뒤집힌 자동차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부서진 차 문 너머로 나오는 수갑 풀린 손!!
 엉망이 된 채 차에서 기어 나오는 지민, 극심한 고통에 한쪽 어깨를 움켜쥐고,
 숨을 거세게 몰아쉬더니 자동차 본체에 어깨를 세차게 부딪친다.

‘팡! 팡!!’ 탈골된 어깨를 맞추며 비명을 지르는 지민, 얼굴이 일그러진 채 주위를 살핀다.
 도로 바닥에 널부러져 있던 샤넬 백을 발견하고 확인하는데,
 샤넬 로고 한쪽이 90도로 찌그러져 있다. 조심스럽게 만지면, C 로고가 ‘툭!’ 떨어진다.

눈빛이 희번덕거리는 지민, 자동차 안을 살핀다.
 뒤집혀 찌그러진 자동차 안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 안전벨트를 풀려고 바둥거리는 준서.
 자동차 옆에 떨어져 있는 총을 줍는 지민.

뒤집혀있지만 애써 웃는 준서와 복수심에 물든 눈빛으로 총을 겨누는 지민.
 ‘탕!탕!!탕!!!’ 총소리와 함께 몸을 들썩이는 준서!!!!
 지민, 탄창이 빌 때까지 끝까지 방아쇠를 당긴다.

지민 (얼굴 일그러지며) ..아이씨... 개 더럽게 안 맞네..

그제야 눈을 질끈 감았던 준서, 조심스럽게 눈을 뜨며 몸 여기저기를 살피고.
 곧, 사고 차량 주위에 멈추는 자동차들과 사람들.
 지민, 준서가 준 목걸이를 던지고, 망가진 샤넬 백을 들고 사라진다.
 바둥거리는 준서, 피 묻은 손으로 붉은 USB를 짹 움켜쥐었다!!

98. 국정원 사격연습실 - 오전

‘탕! .. 탕! .. 탕!’ 표적지에 권총을 쏘고 있는 3차장.

‘탕!탕!!탕!!!’연달아 울려 퍼지는 총소리!! 보면, 옆자리에서 권총을 쏘는 강안이다.

3차장 (표적지를 확인하며) 대선 전에 무조건 정리해.
광화문에서 직접 내려온 오더라카이.
강안 미래정보를 미끼를 쓰자는 건 차장님 생각 아니었습니까?!

3차장 (새 표적지를 갈아킨다) ..
강안 미래정보가 사라지면 씨드9는 영원히 못 잡습니다.
섬멸 작전 취소 해주십시오!!

3차장 (탄창에 총탄을 넣으며) .. 너는 아직도 모르는갑네? 씨드9은 뿌리 못 뽑아.
강안 (멈칫) ..?!!

3차장 놈들은 탐욕 덩어리거든. 조세피난처를 근거로 세계 각국으로 연결되어
있고 오로지 돈에만 충성하지. 그걸 싸워 우에 이기노?
싸우겠다고 기를 쓰면 쓸수록 적만 늘어날 텐데. 널 봐~.

강안 차장님!!

3차장 벽서 파일을 무조건 노릴끼다. 힘을 원하는 자에겐 절대 반지니까.
근데.. 그거 알고 보면 독배거든~ 쓴 놈들은 죄다 중독되고 결국엔
골로 간다카이. 한 놈도 예외 없이. 그때 놈들 목줄을 끊으면 돼.

강안 ..그럼.. 미래 정보는요?

3차장 남은 게 이지민이었나?

강안 국정원 생존술 교관 출신 이상호 동생입니다.

3차장 그래도 동생 훈련 하나는 잘 시켰다카이~

강안 .. 입사 성적도 실전 평가도 좋았던데, 불합격 된 이유가 뭔가요?

3차장 (탄창을 갈아 끼며) 질문이 많았어. 규칙도 자주 어겼고. 전형적인 폭탄이야.

강안 (얼굴이 굳어진다) ..

3차장 (새 표적지에 총을 겨누며) 요즘 자네가 딱 그 짝이다. .. 단디해라. 단디..

‘탕!탕!탕!탕!탕!’ 흠칫 놀라는 3차장.

총을 내려놓는 강안, 3차장 표적지를 너덜하게 만들고 사격장을 나간다.

99. 국정원 주차장/대형 쇼핑몰 - 오전

SUV 앞에서 대기 중인 중무장 한 추적팀들이 강안을 기다리고 있다.

다가가는 강안, 폰이 울리자, 전화를 받는다.

지민 무지 바빠겠네~

강안 (폰에 수신호를 보내자 추적팀이 전화 추적에 들어간다) .. 덕분에.

- 사람들이 지나가는 쇼핑몰에서 이어폰으로 전화를 하며 빠르게 걷는 지민.

지민 발신처가 나이지리아로 잡힐 거야. 그 다음은 콜롬비아고.

멍청한 짓 하느라 시간 낭비 하지마.

지민 전화를 추적하던 추적팀, 강안에게 시간을 더 끌어달라며 손을 돌린다.
추적팀에게 전화 추적을 그만두라며 수신호 하는 강안, 한적한 곳으로 걸어간다.

- 전자 장비로 가득 찬 테마파크로 들어가는 지민

강안 상황이 안 좋아.
지민 섬멸 작전 떨어졌지?
강안 (얼굴이 굳는다) ..
지민 하여튼 몰인정한 회사야~
강안 자수해. 벽서 파일이면 회사도 거래에 응할 거야.
지민 .. 그럼 난?
강안 정상 참작은 받을 수 있겠지.
지민 ..한 20년 쯤?? ..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나오네~
강안 어쨌든 대한민국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니까.
지민 (반박하려다 한숨) .. 휴우..
강안 회사뿐 아니라 씨드9도 널 노려. 절대 못 빠져나가.
지민 세상에나.. 살면서 이렇게 주목받은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아주 인기 대폭발이야~
강안 벽서 파일 넘기고 자수해!! 더 늦으면 그때 정말..
지민 (말 자르며) 회사에 쥐새끼 있는 거 알잖아. 근데 당신.. 믿으면 돼?
강안 (말하려다 주저한다) ..
지민 (웃음보가 터진다) .. ㅋㅋ.. ㅋㅋ..
강안 지금 웃을 때 아냐!!
지민 .. 당신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거짓말 서툴고 명령이나 지시보다는
 명청하게도 자기 일을 사랑했거든. 그러다 골로 갔지만..
강안 (얼굴 일그러지며) 마지막 기회야. 벽서파일 가지고 자수해.
 안 그러면 진짜 죽을 수 있어!!
지민 아니.. 끝까지 가보려고.
 7년 동안 날 가지고 놀았던 잘난 얼굴 쯤은 확인해줘야지~

- 전화를 끊고, 번쩍이는 조명과 기계들로 가득 찬 테마파크로 들어가는 지민.

끊긴 전화를 굳은 얼굴로 바라보는 강안, 앞에 자동차가 멈추자 올라탄다.
빠르게 출발하는 추적팀 자동차들!!

100. 대형 마트 - 오전

쇼핑 진열대에서 생필품을 카트에 담은 진옥.
대부분 밀키트와 냉동식품이다.
폰에 메시지 뜨면, 쇼핑하던 카트를 놔두고 마트를 나간다.

101. 대형 마트 지하 주차장 - 오전

자동차로 향하는 진옥.

그때 뒤에 주차된 자동차에서 누군가 내리고, 긴장한 채 돌아보면, 국정원 감찰팀이다.

부하1 보고서 올리기 전에 먼저 얘기 드릴 게 있습니다.
진옥 (부하1 자동차에 탄다) ..
부하1 (자료를 보여준다) ..
진옥 (자료 확인하며) 회사가 왜 놓친 거지?
부하1 누군가 원본 자료를 지웠습니다.
진옥 (자료 보며) 원본 삭제는 최상급 기밀 취급자만 가능할 텐데..
부하1 아무래도 미래정보와 연관된 것 같습니다.
 (다른 자료 보여주며) 7년 전 모의해킹팀을 운용했던 책임자가..
진옥 (자료를 확인하다 얼굴 굳어진다) ..
부하1 .. 3차장님이었습니다.
진옥 (놀라며) 단독 작전이었나?
부하1 그런 줄 알았는데.. 어시스트한 요원이 있었습니다.
진옥 (서류를 유심히 살펴본다) !!
부하1 다른 쪽이랑 크로스 체크 중인데.. 누군지 곧 알 수 있을 겁니다.
진옥 ..보안은?
부하1 지시하셨던 대로 저와 국장님만 압니다.
진옥 (자료 넘겨주며 어깨 두드린다) 수고했어. 체크는 필요 없고. 누군지 아니까.
부하1 (자료를 보며) ..누..구..??

순간, 숨이 콕 막히는 부하1, 진옥이 만졌던 곳을 보다 발작을 일으킨다.

약지 손가락에서 독 묻은 얇은 비닐장갑을 조심스럽게 벗겨내는 진옥.

진옥 (숨을 헐떡이는 부하1을 다독이며) 조용히 마무리하자.
 과로사로 처리해서 가족들 연금은 받게 해 줄테니까.

진옥을 쏘아보며 숨을 헐떡이는 부하1,
몸을 들쭉거리다 부르르 경련을 일으키더니, 이내 멈춘다.
운전석에서 자는 것처럼 부하1을 추스르는 진옥.

진옥 (손수건으로 주변을 닦으며) 얘기했잖아. 시키는 일만 하라고.
 .. (짜증) 뭐니.. 이게..

차 안을 말끔히 정리하는 진옥, 블랙박스 메모리와 자료를 들고 자동차에서 나간다.

102. 호텔 - 오전

여기저기 찢긴 상처를 술로 소독하고 벌어진 살을 실로 꿰매는 준서.
고통에 얼굴이 일그러지지만, 지민에게 뺏은 붉은 USB를 보며 웃는다.

폰에 붉은 USB를 연결하는 준서, VR 글래스를 쓰고 메타버스에 접속한다.

VR 글래스와 연결된 폰 화면이 불안하게 흔들린다.

103. VR 룸 - 오전

현란한 조명과 트랜스 음악이 흐르는 VR 룸.

폰을 주시하던 지민, ‘connect’라는 알림이 뜨자, VR 글래스를 착용한다.

메타버스로 다이브하는 지민.

104. 유럽 고성(古城) - 오후

환한 햇살이 고성 전체를 밝게 비추고 있다.

콧노래를 부르며 탑 위로 올라가는 레인, 이전과 달리 지민의 미소와 닮았다.

거대한 석문을 열고 들어가는 레인.

레인이 들어오자, 원탁에서 이야기하던 5인의 기사와 킹이 일제히 말을 멈춘다.

원탁의 기사들보다 더 화려한 갑옷과 왕관을 쓴 씨드9의 킹.

레인 (영거주춤 고개 숙이며) OBOEDIO(복종합니다)!!

킹 (반색) 너의 충성심에 보상이 따를 거야. 벽서파일은?? 어서 꺼내 봐!!

기대에 찬 씨드9을 쳐다보는 레인, 주저한다.

원탁1 뭐해? 빨리 전송하지 않고!!

레인 벽서 파일은 복사가 불가능합니다.

원탁2 ..프로텍션 락이 걸려있다는 거야?!

레인 (고개 끄덕인다) ..

킹 .. 해결책은??

레인 이동은 가능합니다만. 그러려면 권한을 재설정 해야 되는데..

원탁2 (난색) 안 돼!! 이 방에서 오픈 하려면 개인 보안 포트를 열어야 돼.

LJ1497!! 일을 이따위로 하나??!!

레인 (고개 바짝 숙이고, 얼굴에 식은 땀이 흐른다) ..

원탁3 에헤.. 사람 소심하게... 그게 걱정되면 우리도 서로를 못 믿지.

원탁4 맞아요. 킹께서도 직접 오셨는데...

원탁1 (킹 눈치를 살피며) 이 방은 3중 보안 처리된 곳이라 문제없을 겁니다.

원탁2 그래도 개인 포트가 열리면 혹시라도 보안 문제에...

킹 (손을 들어 말 끊으며) 여긴 씨드9 소유야. 액티베이션 키를 가진 자만이
입장 가능하고. 벽서 파일이라면 그 정도 수고는 감수해야지~

킹의 결정에 고개를 끄덕이는 원탁의 기사들.

고개 숙인 레인을 못 마땅하게 쏘아보던 원탁2,

어쩔 수 없는 듯 스와이핑을 하자, 개인 보안 포트들이 열린다.

킹 (레인을 보며) 자.. 오픈해.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야.

긴장한 레인, 옷 안에서 벽서 파일을 꺼내 원탁 위로 던진다.
공중으로 날아가 원탁 위에서 보라색 광채와 함께 펼쳐지는 벽서 파일!!

곧, 사방에서 문서, 사진, 동영상 자료들이 회의실 안으로 모여들고.
그 자료들과 소스 파일을 확인하느라 정신없는 킹과 기사들.
그때, 벌컥 문이 열리고, 허겁지겁 뛰어 들어오는 원탁5.

원탁5 큰..일.. 났어요!!

다급한 원탁5의 외침에 멈칫하는 킹과 기사들.
원탁5, 손가락으로 스와이핑하자, 회의실 천장에 동영상이 흐른다.

- *검찰 총장실에 카메라를 들고 몰려온 기자들.*
당황한 직원들이 기자들을 막고 있고, 기자들은 총장의 위치를 묻고 있다.

그 뉴스를 보며 움찔하는 기사들과 화들짝 놀라는 원탁3.

원탁3 .. 저기.. 내 사무실인데??

원탁5 국내 모든 언론사에 제보가 들어갔답니다.

킹 ..무슨 제보??!!

원탁5 씨드9의 리스트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화들짝 놀라는 기사들과 움찔거리는 킹.
반면 고개 숙인 레인의 얼굴에 미소가 흐른다.

킹 (원탁3를 쏘아보며) 언론사 필터링은?

원탁3 (당황) .. 특별히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만...

원탁5 데스크 안 거치고 곧바로 SNS쪽에 퍼지는 바람에 손쓸 사이도 없이..

원탁1 도대체 누가?? (순간 레인을 쏘아보며) .. LJ1497.. 무슨 짓이야??

겁먹은 얼굴로 뒤로 주춤 물러나는 레인, 장난스럽게 손 흔들며 웃는다.

원탁1 (다가가며) 네 놈이 감히 우릴?? 그러고도 살아남기를 바래??

레인 남 걱정할 시간 없을텐데~

레인이 허공에다 두 손을 뻗으면, 황금색 가루가 방 전체에 퍼진다.
곧, 킹과 기사들 얼굴이 흔들거리더니, 서서히 드러나고, 실제 사람 얼굴로 바뀐다.

킹 (얼굴이 드러난 주변 기사들을 보며) ..뭐야.. 이게??

원탁2 (킹의 실제 얼굴을 보며) 킹이.. 당신이었어?!!

원탁3 (킹 얼굴을 보고 놀라며) ..너야?!! 지잡대 주제에.. ..씨발!!

이전의 위엄있는 목소리 대신 불품없는 진짜 목소리가 들리자,

실제 얼굴과 목소리들을 확인하며 서로 소스라치게 놀라는 킹과 기사들.

레인에게 다가가던 원탁1의 얼굴도 실제 얼굴로 바뀌어지다 멈칫거리고,
그때, 문 열리며 누군가 황급히 들어오는데, 벽서 파일을 든.. 레인2다!!

킹 (레인2을 보며) ..넌.. 또 누구..냐..

레인1과 레인2를 번갈아 보며 당황해하는 킹과 기사들.
순간, 바닥을 박차고 날아오른 레인1, 레인2 턱을 연속 발차기로 날려버린다.

‘휘릭!!’ 얼굴이 돌아가는 레인2, 실제 얼굴이 드러나는데, 당황함으로 일그러진 준서다!!
준서가 들고 있던 벽서 파일을 낚아채는 레인1, 얼굴이 드러나는데, 독기 어린 지민이다!!

원탁1 (놀라며) ..미래.. 정보??!!
킹 (당황) 지금 해킹당한 거야.. 우리??
원탁2 ..씨발.. 이래서 개인 포트 열면 안 된다 그랬잖아!!
 하여튼 끈대 새끼들.. 말 진짜 안 쳐들어 먹어.
원탁3 절대 안전하대며??!! 어떻게 좀 해봐!!
준서 (지민을 보고 당황) 이러지 마.. 그러다 진짜 죽어!!
지민 (웃으며) 무슨~ 이래야 공평하지. 이젠 니들 차례야~

고성 안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지민.
순간, 고성이 흔들리더니 여기저기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당황한 킹과 기사들이 서둘러 빠져나가지만, 실제 얼굴은 락이 걸린 채 기이하게 흔들린다.
무너져 내리는 고성 안에서 원탁의 빈자리를 허망하게 바라보는 준서.

105. 공사장 건물 - 오후

VR 글래스를 벗는 지민, 가방을 챙겨 빠르게 건물을 빠져나간다.

106. 호텔 - 오후

VR 글래스를 확 벗는 준서, 어깨를 심하게 들썩이더니 키득거린다.
그때, 폰이 울리고.

메시지

모든 자료 파기. 추후 명령 때까지 대기!!

눈이 꿈틀대던 준서, 황급히 물건을 챙기고 호텔 방을 나간다.

107. 호텔 엘리베이터 - 오후

문이 열리자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준서.
안에는 한껏 멋을 낸 스타일 좋은 남, 녀가 엉켜있다.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르는 준서.

여자의 끈적한 눈빛이 준서 시선과 마주치자, 준서 얼굴에 미소가 흐른다.
순간, ‘휘익!!’ 준서 목을 노리고 들어오는 남자의 칼!!
아슬아슬하게 피하면, 준서 머리에 여자의 총구가 겨눠진다.

‘속!!속!!’ 엘리베이터 벽에 박히는 총탄!!
총구를 옆으로 쳐낸 준서, 칼 든 남자와 총 겨눈 여자를 사정없이 짓이겨버린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준서, 그때 죽은 여자 핸드백에서 폰이 울리고.
‘땡!!’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열리면,
엘리베이터를 타는 폰을 든 건장한 사내들이 준서와 눈이 마주친다.
다시 엘리베이터 문 닫히고.
..... 잔잔한 음악 소리 흐르고.
‘땡!!’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다시 열리면,
피떡이 된 건장한 사내들이 쓰러져 있고, 피범벅으로 광기에 물든 준서가 걸어 나온다.

108. 승재 작업실 앞 - 밤

급히 승재 작업실로 향하는 지민.
그때, 작업실 주위로 검은 SUV들이 들이닥치고.

곧, 작업실 안에서 국정원 추적팀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 나오는 승재.
몸을 숨긴 지민, 뭔가 갑자기 생각났는지 황급히 어디론가 향하는데...

109. 정신병원/자동차 - 밤

정신없이 병실로 뛰어가는 지민.

오빠가 있던 침대가 비어있다.
당황하는 지민, 그때 폰에 사진이 첨부된 메시지가 날아든다.
상처투성이가 된 오빠 사진이다!!
곧, 폰이 울리고, 전화를 받는 지민.

준서	어쩌나? 오빠가 동생을 애타게 찾는데~
지민	오빠 바뀌!!
준서	먼저 줄 게 있잖아.
지민	바꾸라고. 개자식아!!
준서	.. 그렇게 원하신다면~

곧, “아악!! 아악!!!” 지민 폰으로 들려오는 오빠의 비명.

준서 이제 상황 판단 되지? 그러니까 벽서파일..

확 전화를 끊어버리는 지민, 당혹감에 어쩔 줄 몰라 한다.

110. 빌딩 옥상 - 새벽

세찬 바람을 맞으며 옥상 난간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지민.
폰으로 전송된 참혹한 오빠 사진을 보며 얼굴이 일그러진다.
벽서 파일이 든 붉은 USB를 짹 쥐는 지민, 난간 밖으로 던지려다 멈칫!!
‘후...후...’ 애써 호흡을 가다듬는 지민, 흔들리던 눈빛이 차츰 서늘해진다.

붉은 USB를 노트북에 꽂는 지민.
벽서 파일에 암호키를 입력하자, 엄청난 자료들이 노트북으로 모여들고.
승재가 보낸 불법 스팸 메일을 열더니 뚫어지게 쏘아본다.

(소리) 개를 아직 몰라서 그러나 본데...

111. 국정원 취조실 - 새벽

강안에게 취조를 당하고 있는 승재.

승재 못 찾아. 절대.
강안 아니면 내가 다 뒤집어 써. 말해 어디 있는지?!
승재 (피식 웃더니) 이전에 NASA 똥다 걸린 적 있거든.
 미국 애들이 기를 쓰고 날 노렸어. 잘난 체 하던 회사도 날 팔아넘겼고.
 그때 걸렸으면 관티아모에 개끌려가서 지금까지도 햇빛도 못 보고
 썩어 가고 있을 거야. 그때 날 도와준 게 누군 줄 알아?
강안 (쏘아본다) ..
승재 (입술 깨물며) 지민이야. 개미친 이지민!! 들키면 지 인생도 쫓치는데!!
 내 기록과 흔적 다 지워주고, 지금까지 미국 애들 추적 피해 온 것도
 지민이 개 덕분이지. 그런데 잘난 회사께서 지민이를 찾는다고?
 개가 웃을 일이야~~ ㅋㅋ
강안 이대로 두면 죽어!! 말해. 이지민 어딴는지?!!
승재 진짜 모른다니까. 개가 어떤 앤데 흔적을 남겨. 꿈 깨서~~
 (강안을 쏘아보며) .. 그리고, 알아도 얘기 안 해. 씨발.. 절대! 네버!!!

그때 폰이 울리자 움찔 놀라는 승재.
승재 폰을 확인하는 강안, 눈이 확 커진다.

112. 국정원 상황실 - 새벽

국정원 상황실이 바빠졌다. 모니터에는 전송된 파일들이 떠 오르고.

대한민국 곳곳에서 암약하는 씨드9의 리스트다.
리스트를 보며 한껏 들떠 대환, 폰이 계속 울리지만 무시한다.

대환 쥐새끼들... 다 똤졌어~
요원1 (전화 받으며) .. 3차장님입니다. 지금 작업 모두 중지하라는데요.

상황실 컨트롤 박스로 가는 대환, 소화기로 박살을 내자 곧바로 잠기는 상황실 문!!
리스트 업을 하던 요원들, 대환의 돌발행동에 멈칫한다.

대환 매일 야근에.. 휴일에 언제 쉬었는지 기억도 안 나. (요원들을 하나하나 보며)
그러니 차이고, 이혼당하고, 죄다 솔로 신세지. 그렇게 좇빠지게 다닌
회사인데.. 어떤 새끼들은 회사를 감아먹고 있었어. 쥐새끼처럼!!
그런데 그걸 또 손 놓고 지켜보라고?? .. 좇까라고 해!!
상황실!!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건 장대환이 책임진다.
(씨드9 리스트를 보며) 쥐새끼들 뺏속까지 탈탈 털어!!

동요하던 요원들, 대환의 단호함에 일사분란하게 리스트를 체크하고.
씨드9 리스트를 확인하던 대환, 아는 인물이 나왔는지 헛웃음 짓는다.

그때 다급해지는 상황실 요원들.
보면, 상황실 모니터에 암호가 걸린 파일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대환 뭐야??
요원1 암호 걸린 파일들이 무작위로 퍼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벽서 파일 같습니다..
대환 (황당) 하... 이지민.. 개미친....!!

113. 안나 푸르나 - 아침

눈이 날리는 하얀 빙벽 정상에 서 있는 지민.
입김을 내 뿜으며 준서가 다가온다.

준서 역시 사람 놀래키는 재능은 타고 났어~
지민 (씨익) 벽서 파일 달라며?
준서 그렇다고 그걸 뿌려? 미친 거 아냐??!!
지민 (암호키 흔들며) 암호키 없으면 그냥 쓰레기잖아~
준서 아직 똥 오줌 못 가리나 본데.. 선배는 똥쳤어.
 선배가 텅 곳이 한 두 군데야? 게다가 불쌍한 선배 오빠는??
지민 우리 집 가훈이 각자도생이거든~
준서 (노려보다 웃으며) ..하... 원하는 게 뭔데?!

지민 뭐겠어? 생존을 위한 일 순위. 돈이지~
준서 ..돈??!! (피식) 얼마??
지민 내 몸값 10배... 가 아님.. (씨익) 1,000배??!!
준서 (황당) .. 1,000배... 죽고 싶구나. 정말..

지민 아니.. 살려고!! .. 태도를 바꾸라며? 주위가 달라진다며??
준서 (얼굴 찌푸린다) ..아... 씨발..
지민 (벽서 파일 암호키 흔들며) 입질이 여기저기 많아. 아주!! .. 딱 1시간 줄게~
준서 (다가가며) .. 이봐요 선배.. 선..

준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빙벽 정상에서 사라져버리는 지민.
당황한 준서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진다.

(소리) 씨발!!! 아직이야??!!

114. 준서 자동차/초고층 빌딩 - 새벽

VR 클래스를 신경질적으로 벗는 준서.
사내1, 노트북으로 지민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

사내1 다 왔습니다!!

빠른 속도로 공사 중인 빌딩 안으로 들어가는 자동차, 출입구 앞에 급하게 멈춘다.
까마득하게 높이 솟은 초고층 빌딩을 올려다보는 준서, 살기가 흐른다.

사내2 이 새끼 어떻게 할까요?

준서, 뒤를 보면, 겁에 질린 상호가 유리창 밖을 두리번거리고 있다.

115. 초고층 빌딩 안 - 새벽

폰에 표시된 붉은 점을 따라가는 총을 겨눈 준서.
한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자,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공사 중인 빌딩 안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는 지민.
인기척 소리와 함께 준서가 다가오자,
노트북에 꽂힌 붉은 USB를 뽑아 전기 충격기에 갖다 댄다.

준서 아.. 질척대긴.. 선배답지 않게 왜 이래~

준서가 손짓하자, 사내1,2,3에게 끌려나오는 상호, 지민을 보자 웃으며 손 흔든다.

준서 가훈이 각자도생이라고?

준서, 상호 머리를 권총으로 사정없이 내리친다.
'아악!!'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리는 상호.
지민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인다.

준서 어찌나~ 난 선배보다 키도 크고, 격투기에다 근접전도 만렙인데.
 (총 흔들거리며) 거기다 선배 척추에 한 방이면 평생 똥오줌 위에서
 못 일어나.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
지민 난.. 지는 싸움 안 해.
준서 (피식거리다 총구로 상호 머리를 짓누르며)
 허세 그만 떨고 암호키 내놔. 안 그러면 이 애물단지를..

순간 ‘탕!!’ 소리 들리고, 몸을 움츠린 준서.
‘털썩!!’ 피로 물든 오른쪽 허벅지를 부여잡고 쓰러진 상호, 고통에 신음한다.

지민 오빠!!!!

놀란 준서, 총구를 총소리 난 곳으로 겨누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누군가, 국정원 감찰국장 진옥이다!!

준서 (얼굴이 일그러지며) 안 그래도 연락 드릴려고 했는데..

다가간 진옥, 권총으로 준서 머리를 내려친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지만, 주인 앞의 사냥개마냥 고개 숙인다.

지민 어떤 일이야. 이렇게 직접 행차를 다 하시구~
진옥 (미소) 이게 다 누구 덕분이겠어?
지민 당신도 이제 끝났어.
진옥 (어깨 으쓱) 나..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 근데 선배들 보니까 끝이 시시하더라.
 뒷방 늙은이 금방 돼서 작은 부스러기 먹을 거에 목숨이나 걸고.
 인생 전부를 대한민국에 바쳤다는 사람들인데 말이야..
 모든 게 시들해지더라. 그때 찾아왔어. 씨드9이.
지민 눈물 겨운 사연이 겨우 그거야?! 회사가 니들을 찾아낼 거야.
진옥 미련 없어. 주인 바뀌면 열심히 일하던 사람 순으로 찢리는 곳이 회사잖아.
 하지만 씨드9은 다르지. 집안, 학력, 남녀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돈에 충성하니까. 얼마나 명쾌하고 심지어 공평해~
지민 그래서 미래정보를 이용하고 버린 거야?
진옥 지금까지 월급 한 번 밀린 적 없었잖아~ 잔업 수당도 꼬박꼬박 다 챙겨주고.
 그 정도면 꽤 괜찮은 일자리 아닌가?
지민 (살기가 흐른다) ..
진옥 내가 만들었니까 폐업 신고도 내 손으로 마무리해야지. .. 벽서 파일 넘겨!!
 (총구로 상호 머리를 짓누르며) 네 오빠 머릿속을 보고 싶지 않으면!!

진옥의 위협에 고통스러워하는 상호.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던 지민, 상호를 보더니 소리친다.

지민 이상호!! 잘 들어. 지금부터 우리 놀이할 거야.
상호 .. 우리.. 놀..이? (화들짝) ..설마 그..거??!!
지민 (고개 끄덕이며) 그래!! 오빠 좋아하는 거!!

갑자기 눈에 생기가 도는 상호, 지민을 보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인다.

진옥 (짜증) 아.. 신판는 딱 질색인데.. (준서를 보며) 가져와. 암호키!!

진옥의 명령에 총을 겨누며 지민에게 다가가는 준서.
지민, 망가진 샤넬 미니백을 꺼낸다.

준서 (다가서다 흠칫) 아이씨..

지민 (피식 웃더니 샤넬백에서 빨간 장갑을 꺼내며) 쫄려?

준서 ..씨발.. 누가??!!

진옥 (짜증) 암호키.. 빨리 가져와!! 저딴 거랑 노닥거릴 시간 없어.

지민 ..저딴 거?? ㅋㅋㅋ.. (빨간 장갑을 손에 끼며) 내 이름은 이지민. 32살.
B형. 불의는 외면해도 불이익은 몇 배 되돌려주고야 마는 쌍년이지.
이젠 더 이상 안 당해. 절대!!

진옥 (귀찮다는 듯 준서를 쏘아보며) 아... 뭐하니? 빨리 처리 안 하고?!

짜증스러워하던 진옥, 보면 비싸 보이는 가죽 구두가 물에 잠겨있다.
준서도 주위를 둘러보면, 한 층 전체 바닥이 물로 찰랑거린다.

진옥 (얼른 까치발하며) ..뭐야? 이 물은.. 더럽게..

준서 (흠칫 지민을 쏘아본다) ..너...!!

지민 (빨간 장갑으로 두 선을 치켜든다) 짜릿할 거야. 아주!! 기대해~~

진옥 (순간 멈칫) 저.. 미친 년... 막아!! 빨리!!

지민에게 달려드는 준서와 사내들.

빨간 장갑을 낀 지민, 상호를 보며 웃더니 들고 있던 붉은 두 선을 짹 맞댄다.

순간, 주변 조명이 깜빡거리고,

‘빠지썩!!!’ 시퍼런 스파크와 함께 고압 전류가 쏟아지는 공사장 빌딩!!

달려들던 사내1,2,3.. 고압전류에 몸을 부르르 떨고.

다가서던 준서와 총을 겨누는 진옥도 몸이 심하게 비틀린다.

‘으으윽!!!!’ 비명인지 환호인지 모를 기이한 소리를 내며 버티는 상호.

지민도 고압전류에 바둥거리는 진옥과 준서를 보며 이 악물고 견뎌낸다.

곧, 온몸에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사내1,2,3.

준서와 진옥은 지민을 막으려고 발버둥치며 다가오고,

두 전선을 들고 끝까지 버티는 지민, 다가온 준서와 진옥 입에 두 선을 꽂아버린다.

‘파팍!!’ 온몸에 불꽃이 튀는 준서와 진옥.

지민 (이 악물고 두 선을 맞대며) 니들 영혼까지 튀겨줄게. 아주 바삭!!

엄청난 고압 세례에 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비틀어지는 진옥과 준서.

그때 복도 쪽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오고,

총구를 겨누는 채 빠르게 난입하는 강안과 국정원 추적팀!!

바닥에 꼬꾸라진 채 부들부들 경련을 일으키며 튀겨지는 진옥과 준서를 발견한다.
하지만 누구 하나 다가설 엄두조차 못 낸다.

놀란 강안과 추적팀을 보며 이 악물고 끝까지 버티는 지민과 상호,
몸은 부들부들 떨리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요란스런 소리와 함께 화면 점점 어두워진다.

116. 취조실 - 오후

화면 밝아지면, 취조실에 앉아 있는 지민.
문 열리고, 대환이가 휘파람을 불며 들어오더니 지민 앞에 앉는다.
지민 앞으로 던져지는 서류들. 7년간 지민이 모의 해킹했던 범죄증거들이다.

대환 씨발.. 블록버스트급 대잔치야. 단일로는 국내 최고 기록~
국가 주요시설 파괴와 불법 자료 유출로.. 족히 30년은 썩게 될 거야~
지민 (서류를 볼 생각도 않는다) ..
대환 설마 변호사 그만 거 기대하는 거 아니지? 꿈 깨.
모든 건 비공개로 진행되고, 더 조사할 것도 없이 바로 구속될 테니까.
지민 (대환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
대환 (피식) 아직 똥 오줌 못가리나 본데.. (턱으로 지민 가리키며)
거기 앉은 인간치고 제 발로 나간 놈 하나도 없어.
정상 참작이라도 받으려면 협조해. 벽서 파일 암호키 어딴어?!

대환의 취조에 담담하게 대환 뒤쪽 유리 너머를 바라보는 지민.
그때 대환 폰에서 메시지 울리고, 폰을 확인하더니 당황한 얼굴로 황급히 나간다.
취조실 거울 너머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지민.

(소리) 풀어주라니요??!!!!

117. 취조실 녹화실 - 오후

열받은 대환과 3차장, 강안이가 프로그램이 뜬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다.
타임리밍이 줄어드는 불법 스팸 발송 프로그램!!
60초. 59,58,57초..
창문 너머 취조실에 있는 지민을 죽일 듯 쏘아보는 대환과 난감해하는 3차장, 강안.

3차장 맞나? 암호 해제 못 하면 벽서 파일이 통째로 유포된다는 게..??
강안 (고개 끄덕이며) 그것도 매일 같은 시간에 암호를 해제해야..
3차장 (머리가 찢끈) 만약 저 폴아이가 아프거나.. 문제라도 생기면?
강안 회사 이름으로 불법으로 수집된 민감한 자료들이 무작위로 발송되겠쥬.
3차장 (얼굴 일그러지며) ..다른 방법 없나? 약물이나.. 고문 있잖아?!
강안 입사 시험 때 극한 테스트 1위에 생존술, 고압 500V에도 버틴 자입니다.
대환 그렇다고 저 미친 폭탄을 그냥 풀어줘요?!

이건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자 테러입니다. 테러..

3차장 (조인트 까며) 그러니까 솔루션!! 솔루션을 내라고!!

대환 (딱히 방법이 없다) ..안 되면.. 그냥.. 죽..일까요??

3차장 (조인트 더 까며) 미친 새끼.. 내가 막을래? 암호 풀린 벽서 파일을??!!

대환 ..그게 언젠가는.. 하다보면.. 또..

3차장 당장 암호 입력 못하면 벽서 파일이 퍼진다잖아. 그것도 무작위로!!

점점 줄어드는 타임리미트. 30초 29초. 28초

3차장 (다급) 정말.. 다른 방법 없는 거야?!

대환 (슬쩍 시선 피한다) ..

강안 (조심스럽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그게...

기대감으로 강안을 쳐다보는 3차장과 대환.

강안, 취조실 안 지민을 불안하게 바라본다.

118. 취조실 - 오후

취조실 거울 너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지민,
마치 취조실 너머 대화 내용을 알기라도 하듯 웃음이 번지고.
지민 얼굴에 처음으로 편안함이 가득하다. 화면 점점 어두워진다.

119. 안나푸르나 빙벽 - 새벽

‘휘잉~~’ 세찬 바람 소리와 함께 깎아 지른 하얀 빙벽을 올라가는 알파니스트.
귀를 때리는 바람과 거친 눈발에도, 한 발 한 발 정상을 향해 올라간다.
마침내 정상에 올라서더니 가글을 뱉는데, 하얀 입김을 내뿜는 지민이다.

그때 ‘냐옹~~’ 소리 들리고, 지민 등에 맨 백팩에서 검은 고양이 도생이가 삐죽 나온다.
새하얀 세상을 처음 보는 듯 눈을 꿈뻑거리며 지민 주위를 거니는 도생.

그때 ‘두둥둥!!’ 거센 눈보라와 함께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오고.
안나푸르나 정상에 착륙하는 대형 헬기!!
상호와 승재가 내리고, 그 뒤로 검은 선글래스를 쓴 국정원 정예들이 주위를 경계한다.

승재 (입김 내 품으며) 이러다 얼어죽겠어.. 휴가가 무슨 산꼭대기냐?
다음엔 바다 가자. 제발..

상호 (하얀 세상을 보자 얼굴 환해지며) ..안나 푸르나.. 안나 푸르나..

믿기지 않는 듯 눈을 꿈뻑거리며 안나푸르나의 새하얀 세상을 둘러보는 상호.
그때 선글래스를 낀 요원,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고, 얼굴이 잔뜩 찌푸려진 대환이다.

대환 (국정원 서버에 접속하며) 그렇게 정규직 정규직 할 땐 언제고..

재택에다 유연근무, 휴가까지.. 아주 지 맘 대로야.. 에이취!! 추워 뒤지겠네..

국정원 접속 화면에는 벽서 파일이 첨부된 불법 스팸 메일 타임리밋이 1분 남았다.

- (intercut) 국정원 상황실.

타임리밋이 줄어드는 긴장감 넘치는 상황실.

말썽한 인상의 강안, 요원들에게 지시를 하며 타임리밋을 초조하게 확인하고 있다.

느긋한 지민과 달리 올상인 대환.

대환 회사가 또 초비상!! .. 어서요. 제발..

줄어드는 타임리밋을 보며 안절부절못하는 대환.

지민, 장갑을 벗더니 화려하게 치장한 손가락으로 스팸 발송 해제 버튼을 ‘톡!’ 누르고,
동시에, 지민의 심장 박동수를 따라 암호 해제 그래프가 싱크되더니 정확하게 일치된다.
‘스르륵!!’ 다시 24시간으로 세팅되는 벽서 파일이 첨부된 스팸 메일!!

- (intercut) 국정원 상황실.

24시간으로 다시 세팅된 타임리밋을 확인하는 강안, 한숨을 내쉬고.

상황실 요원들도 일상 업무로 돌아간다.

인공위성으로 안나푸르나 정상을 확인하는 강안.

지민을 지켜보던 강안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흐른다.

안나푸르나 정상에서 선 지민, 이전에 망가져 대충 수선한 샤넬 미니백을 꺼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텀블러를 느긋하게 마시는 지민.

지민 (세인트 헬레나 스페셜티 커피를 음미하듯) 역시 산에서는.. 커피 믹스야~~
 (떠오르는 해를 보고 느긋하게 기지개 켜며) 날씨.. 조오타~~

새하얀 눈 위를 짹짹 뛰어다니는 고양이와 해 맑게 웃는 상호, 추위에 떠는 승재.
그들을 보며 환하게 웃는 지민의 얼굴에서, 신나는 음악 터져 나온다!!

- END -